

for

K's EBS

by 레커 in  *by move*



수능특강 55p 3

<보기>의 선생님이 제시한 [자료]를 탐구한 결과로 적절한 것은?

선생님: 지난 시간에 국어의 자음을 조음 위치와 조음 방법에 따라 분류해 보았습니다. [자료]의 ㉠~㉥은 선생님이 조음 위치와 조음 방법을 기준으로 하여 국어의 자음을 분류한 것입니다. [그], [응]처럼 모음 ‘-’를 활용하여 자음들을 직접 발음해 보면서, 선생님이 분류한 자음들이 어떠한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지 찾아봅시다.

|         |         |            |         |            |
|---------|---------|------------|---------|------------|
| ㉠       | ㉡       | ㉢          | ㉣       | ㉤          |
| ㅁ, ㄴ, ㅇ | ㄷ, ㅌ, ㅊ | ㅍ, ㅍ, ㅋ, ㆁ | ㅅ, ㅆ, ㅎ | ㅂ, ㅃ, ㅍ, ㅍ |

- ① ㉠은 발음할 때 입으로만 공기가 빠져나가는 자음들이군
- ② ㉡은 발음할 때 공기를 한 번에 터뜨려서 소리 내는 자음들이군.
- ③ ㉢은 발음할 때 공기를 계속 좁은 틈으로 내보내는 자음들이군.
- ④ ㉣은 발음할 때 코로도 공기가 빠져나가는 자음들이군.
- ⑤ ㉤은 발음할 때 입술을 사용하여 소리 내는 자음들이군.

수능완성 88p 2

<보기>는 음절 구조의 유형 및 음절 구조의 변동에 관한 학습 활동이다. A와 B에 해당하는 것을 찾아 바르게 짝지은 것은?

국어의 음절은 크게 네 가지 유형의 구조로 실현된다.

- a. 모음
- b. 자음 + 모음
- c. 모음 + 자음
- d. 자음 + 모음 + 자음

그런데 어떤 단어에서 연음이 일어나면 앞 음절과 뒤 음절의 음절 구조 유형이 바뀐다. 음운 변동이 일어나도 음절 구조 유형이 바뀌는 경우가 있다. 다음 단어들을 연음이나 음운 변동에 의해 음절 구조 유형이 바뀐 음절이 있는 말과 그렇지 않은 말로 나누어 보자.

ㄱ. 압정      ㄴ. 잠일      ㄷ. 축하      ㄹ. 많지만      ㅁ. 걸늬은

음절 구조 유형이 바뀐 음절이 있는 말 : A

음절 구조 유형이 바뀐 음절이 없는 말 : B

|   | A       | B       |
|---|---------|---------|
| ① | ㄱ, ㄴ    | ㄷ, ㄹ, ㅁ |
| ② | ㄴ, ㄷ    | ㄱ, ㄹ, ㅁ |
| ③ | ㄴ, ㅁ    | ㄱ, ㄹ, ㅁ |
| ④ | ㄱ, ㄷ, ㅁ | ㄴ, ㄹ    |
| ⑤ | ㄴ, ㄷ, ㅁ | ㄱ, ㄹ    |

수능완성 236p 1,2

1~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옷+과’를 발음할 때는 먼저 ‘올과’로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적용된 다음에 된소리되기가 일어나 [올꽂]로 발음된다. 그리고 ‘놀 +-고’를 발음할 때는 거센소리되기가 일어나 [노코]로 발음된다. 그런데 만약 ‘놀 +-고’에 거센소리되기 대신 음절의 끝소리 규칙을 먼저 적용한다면 ‘놀 +-고 → 놀고 → [\*놀꼬]’라는 부정확한 발음이 나오게 된다. 이처럼 여러 음운 변동이 적용될 수 있는 단어의 실제 발음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음운 변동의 적용 순서를 합리적으로 설정해야 하며, 일관된 순서로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다.

음운 변동의 적용 순서를 설정할 때는 ㉠적용 순서를 따로 정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결정되는 경우와 적용 순서를 인위적으로 정해 주어야 하는 경우가 있다. 위에서 예를 들었던 ‘옷+과 → 올과 → [올꽂]’은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된소리되기보다 먼저 적용된다는 순서를 가지고 있다. 된소리되기는 음절 끝 ‘ㄱ, ㄷ, ㅂ’ 뒤에서 적용되는 현상이므로 ‘옷+과’의 경우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먼저 적용되지 않으면 된소리되기는 적용될 수 없다. 평파열음이 비음 앞에서 비음으로 바뀌는 현상인 비음화는 음절 끝 ‘ㄱ, ㄷ, ㅂ’에만 적용되므로, ‘옷+만 → 올만 → [올만]’과 같은 사례에서도 자동으로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적용된 후에 비음화가 적용된다. 한편 ‘만지+-어 → 만져 → [만져]’를 살펴보면, ‘ㅣ’로 끝나는 용언 어간 뒤에 ‘아/어’로 시작하는 어미가 올 때 ‘ㅣ’가 반모음 ‘j’로 바뀌는 현상인 반모음화와 경구개음 ‘ㅈ, ㅊ, ㅊ’ 뒤에 반모음 ‘j’가 올 때 반모음 ‘j’가 탈락하는 현상인 ‘j’ 탈락이 차례로 적용되고 있다. 국어에서는 ‘ㅈ, ㅊ, ㅊ’로 끝나는 형태소 뒤에 ‘ㄷ, ㅌ’ 등 ‘j’로 시작하는 형태소가 직접 결합하는 경우는 없으므로, ‘j’ 탈락은 반드시 반모음화가 일어난 후에만 적용된다.

반면 음운 변동의 적용 순서를 따로 정해 주지 않으면 표면형, 즉 우리가 실제로 듣게 되는 발음형이 잘못 나올 수 있어 이를 막기 위해 음운 변동의 적용 순서를 인위적으로 정해 주어야 하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알+-는’처럼 ‘ㄹ’과 ‘ㄴ’이 결합하는 경우 유음 탈락이 적용될 수도 있고 유음화가 적용될 수도 있다. 하지만 유음화가 먼저 적용되면 [\*알른]과 같이 잘못된 표면형이 나오므로 유음 탈락이 먼저 적용된다는 순서를 인위적으로 부여해야 한다. 즉 ‘알+-는 → [아 : 는]’은 유음 탈락이 먼저 적용되며 유음화는 적용되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읽+-고’는 자음군 단순화가 먼저 적용될 수도 있고 된소리되기가 먼저 적용될 수도 있다. 그런데 만약 자음군 단순화가 먼저 적용되면 [\*일고]와 같은 잘못된 표면형이 나오게 된다. 용언 활용형에서는 ‘ㄹ’ 뒤에서 된소리되기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잘못된 표면형이 나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읽+-고 → 읽꼬 → [일꼬]’와 같이 된소리되기가 자음군 단순화보다 먼저 적용된다는 순서를 인위적으로 정해 주어야 한다.

(\*는 문법적으로 잘못된 것.)

1. 뒷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살+-는 → [사 : 는]’은 유음 탈락을 먼저 적용하며 유음화가 일어나지 않은 것이다.
- ② ‘넙+-고 → [넙꼬]’는 자음군 단순화를 먼저 적용한 다음에 된소리되기가 일어난 것이다.
- ③ ‘짓+-는 → [진 : 는]’은 음절의 끝소리 규칙을 먼저 적용한 다음에 비음화가 일어난 것이다.
- ④ ‘닥+-고 → [닥꼬]’은 음절의 끝소리 규칙을 먼저 적용한 다음에 된소리되기가 일어난 것이다.
- ⑤ ‘똥+-고 → [똥꼬]’는 거센소리되기를 먼저 적용하며 자음군 단순화가 일어나지 않은 것이다.

2. ㉠에 해당하는 예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               |               |                |
|---------------|---------------|----------------|
| ㉠ 값+-는 → [값는] | ㉡ 맑+-게 → [말게] | ㉢ 빠지+-어 → [빠저] |
| ㉣ 째+-다 → [째따] | ㉤ 찾+-고 → [참꼬] |                |

- ① a, b, c
- ② a, c, e
- ③ a, d, e
- ④ b, c, d
- ⑤ b, d, e



수능특강 61 6

<보기>의 ㉠가 적용된 사례만을 모두 고른 것은?

㉠종성 자리의 ‘ㅎ’은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가 올 때, 즉 연음이 일어나는 환경에서는 탈락해 버린다. 그런데 ‘ㅎ’은 자음군 단순화가 일어나서 탈락하는 경우도 있다. 즉, 종성 자리에 두 개 이상의 자음이 왔을 경우에 음절 말에 있는 ‘ㅎ’이 탈락하는 것이다. 다만, 이 경우에 거센소리되기가 일어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면, 자음군 단순화가 일어나지 않고 거센소리되기가 일어난다. 아래 문장에서 ‘ㅎ’이 탈락하는 경우를 구분해 보자.

㉠쌓인[싸인] 일이   ㉡많고[만 : 코]   ㉢많아서[마 : 나서]   쉴 틈이 나지   ㉣않는다[안는다].

- ① ㉠, ㉡    ② ㉠, ㉢    ③ ㉡, ㉣    ④ ㉡, ㉣    ⑤ ㉢, ㉣

수능완성 174 35

㉠, ㉡의 사례가 모두 올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국어에서는 음절의 종성으로 ‘ㄱ, ㄴ, ㄷ, ㄹ, ㅁ, ㅂ, ㅇ’ 중의 하나만이 발음될 수 있다는 강력한 제약이 있다. 이 제약 때문에 이 일곱 가지 이외의 자음이 종성 자리에 오면, 이 일곱 가지 중 하나로 바뀌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적용된다. 또한 두 개의 자음이 종성 자리에 올 때에도 하나만 남고 하나는 탈락하는 자음군 단순화가 적용된다. 음절의 끝소리 규칙과 자음군 단순화는 단어에 따라 ㉠하나만 적용되기도 하고, ㉡두 가지가 모두 적용되기도 한다.

㉠                      ㉡

- ① 닭과[닥과] 넓고[널꼬]  
 ② 읊지[읍찌] 잃지[일치]  
 ③ 굵게[글께] 읊다[읍따]  
 ④ 잃고[일코] 넓다[널따]  
 ⑤ 많다[안타] 굵나[글나]

수능특강 59 2

<보기>의 ㉠, ㉡의 사례를 모두 적절하게 제시한 것은?

국어 발음을 관찰해 보면, ㉠전설 모음으로 끝나는 용언 어간이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와 결합할 때, 반모음인 ‘j’가 첨가되는 현상을 발견할 수 있다. 이러한 ㉡‘j’ 첨가 현상 중에서 표준 발음으로 인정되는 것을 알아보려면 표준 발음법 규정과 『표준국어대사전』을 찾아보면 된다. 먼저 표준 발음법 제22항은 “다음과 같은 용언의 어미는 [어]로 발음함을 원칙으로 하되, [여]로 발음함도 허용한다.”인데, 이 조항의 예시로는 ‘되어’와 ‘피어’가 제시되어 있다. 즉, ‘되’, ‘피’로 끝나는 용언 어간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결합할 때 ‘j’를 첨가하는 것은 표준 발음으로 인정되는 것이다. 그리고 표준 발음법 규정에 예시로 제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표준국어대사전』에서 ‘휘다’와 같이 어간이 ‘귀’로 끝나는 단어의 발음 정보에 [휘어/휘여]와 같이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에 ‘j’가 첨가된 발음을 함께 제시하고 있어 이 역시 표준 발음으로 인정됨을 알 수 있다.

|   | ㉠의 사례                   | ㉡의 사례                   |
|---|-------------------------|-------------------------|
| ① | ‘데--+어서’를 [데여서]로 발음한다.  | ‘기--+어서’를 [기여서]로 발음한다.  |
| ② | ‘고이--+어서’를 [고여서]로 발음한다. | ‘비--+어서’를 [비여서]로 발음한다.  |
| ③ | ‘이기--+어서’를 [이겨서]로 발음한다. | ‘취--+어서’를 [취여서]로 발음한다.  |
| ④ | ‘괴--+어서’를 [괴여서]로 발음한다.  | ‘숙이--+어서’를 [수겨서]로 발음한다. |
| ⑤ | ‘돌리--+어서’를 [돌려서]로 발음한다. | ‘실리--+어서’를 [실려서]로 발음한다. |

수능특강 224 1

다음 자료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 어간과 어미 ‘-어’의 결합 | 사전에 제시된 활용형과 발음    |
|---|-----------------|--------------------|
| ㉠ | 걸--+어           | 걸어[거러]             |
| ㉡ | 싫--+어           | 싫어[시러]             |
| ㉢ | 지--+어           | 지어[지어/지여](져[저])    |
| ㉣ | 크--+어           | 커[커]               |
| ㉤ | 피--+어           | 피어[피어/피여](퍼[퍼 : ]) |

- ① ㉠와는 달리 ㉡에서는 자음이 하나 탈락한 후에 연음이 일어난다.
- ② ㉢와 ㉤에서는 반모음이 첨가된 발음이 표준 발음으로 인정된다.
- ③ ㉢에서 ‘저’가 [저]로 발음되는 것은 이중 모음에서 반모음이 탈락한 결과이다.
- ④ ㉣에서는 모음이 탈락하여 음운 수가 줄었다.
- ⑤ ㉤에서 ‘피-’가 ‘-어’와 결합하여 [퍼 : ]로 발음되는 것은 어미가 탈락했기 때문이다.

수능완성 152

밑줄 친 부분이 <보기>의 ㉠에 해당하는 예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형태소는 의미를 가진 가장 작은 말의 단위이다. 하나의 형태소가 하나의 음절로 온전히 실현되는 경우가 일반적이지만, ㉠두 개의 형태소가 결합하여 하나의 음절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땅을) 기-’에 어미 ‘-어’가 결합된 ‘(땅을) 기어’가 ‘겨’로 나타나거나, ‘(불에) 타-’에 선어말 어미 ‘-았-’이 결합된 ‘타았-’이 ‘탸’로 나타나는 경우가 두 개의 형태소가 결합하여 하나의 음절로 나타난 경우에 해당한다.

- ① 그간 책상에는 먼지가 뽀얗게 쌓였더군.
- ② 그 선비는 행색이 너무나도 초라하였다.
- ③ 형은 매일 작은 수첩에 일기를 써 왔다.
- ④ 어둠 속에서 튀어나온 것은 호랑이었다.
- ⑤ 얼른 일어나 밥 먹고 학교에 가!

수능특강 60 3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독서’와 ‘물병’을 발음할 때는 [독써], [물뽕]과 같이 예사소리가 된소리가 되는 음운 현상이 일어난다. 그런데 두 음운 현상이 일어나는 환경은 전혀 다르다. ‘독서’에서 일어나는 음운 현상은 ‘국밥, 집밥’과 같은 단어에서 일어나는 된소리되기와 같은 것으로, 국어에서 ‘ㄱ, ㄷ, ㅂ’ 뒤에 오는 예사소리가 된소리로 발음되는 현상이다. 이 현상은 해당 환경이 만들어지면 반드시 일어난다. 반면에 ‘물병’에서 일어나는 음운 현상은 사잇소리 현상이라고 불리는 것으로서, 합성어에서 모음이나 공명음(ㄴ, ㄹ, ㅁ, ㅇ) 뒤의 예사소리가 된소리로 발음되는 현상이다. 그런데 ‘불고기[불고기]’와 ‘물고기[물꼬기]’의 발음에서 알 수 있듯이, 이 현상은 합성어에서 모음이나 공명음 뒤에 예사소리가 온다고 해서 반드시 일어나는 것은 아니다.

- ① ‘물새[물쌔]’와 ‘봄방[봄뽕]’에서 예사소리가 된소리로 변한 것은 서로 다른 현상이군.
- ② ‘산길[산깁]’과 ‘창가[창까]’에서 예사소리가 된소리로 변한 것은 서로 다른 현상이군.
- ③ ‘촉각[촉깁]’과 ‘물값[물깁]’에서 예사소리가 된소리로 변한 것은 서로 같은 현상이군.
- ④ ‘봄빛[봄뽕]’과 ‘등불[등뽕]’에서 예사소리가 된소리로 변한 것은 서로 같은 현상이군.
- ⑤ ‘복습[복쌔]’과 ‘화병[화 : 뽕]’에서 예사소리가 된소리로 변한 것은 서로 같은 현상이군.

수능특강 55 4

<보기>의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늦봄에[늘봄에] 크고 작은 ㉡산불이[산뿌리] ㉢많이[마:니] 일어나고 있습니다. ㉣국민[궁민] 여러분께서는 불씨 ㉤관리에[괄리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① ㉠에서는 평음 뒤에서, ㉡에서는 용언 어간 받침 ‘ㄴ’ 뒤에서 된소리되기가 일어났다.
- ② ㉠에서는 교체만 일어나고, ㉢에서는 교체와 탈락이 일어났다.
- ③ ㉠, ㉢에서 파열음이 모두 조음 위치가 다른 자음으로 바뀌는 음운 변동이 일어났다.
- ④ ㉡, ㉤에서 음운 변동을 겪은 자음은 모두 그 뒤에 오는 자음과 조음 방법이 같아졌다.
- ⑤ ㉢, ㉤에서 ‘국민’과 ‘관리’는 모두 한자어라는 조건이 갖추어져 음운 변동이 일어났다.

수능특강 98 3

<보기>에서 설명하는 a~c의 음운 변동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a. 합성어 및 파생어에서 앞말이 자음으로 끝나고 뒷말이 모음 ‘ㅣ’나 반모음 ‘ㅈ’로 시작할 때 ‘ㄴ’이 그 사이에 첨가되는 현상  
 b. 평음이 일정한 조건에서 경음으로 바뀌는 현상  
 c. 끝소리가 ‘ㄷ, ㅌ’인 형태소가 모음 ‘ㅣ’나 반모음 ‘ㅈ’로 시작되는 형식 형태소와 만나 각각 구개음인 ‘ㅈ, ㅊ’으로 바뀌는 현상

- ① a가 합성어에서 일어나는 예로 ‘두통약[두통낙]’을 들 수 있고, 파생어에서 일어나는 예로 ‘한여름[한녀름]’을 들 수 있다.
- ② b가 받침 ‘ㄱ’, ‘ㄷ’, ‘ㅂ’ 뒤에서 일어나는 예로 각각 ‘국밥[국뺨]’, ‘밀지[밀찌]’, ‘츄고[츄꼬]’를 들 수 있다.
- ③ b와 달리, c는 조음 위치와 조음 방법 모두에 변화가 일어나는 음운 변동에 해당한다.
- ④ b, c와 달리, a가 일어난 후에는 음운 변동이 일어나기 전에 비해 음운의 전체 개수가 늘어난다.
- ⑤ a, c 모두 음운 변동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모음 ‘ㅣ’나 반모음 ‘ㅈ’로 시작되는 형식 형태소가 결합되어야 한다는 음운 환경이 충족되어야 한다.

수능특강 106 3

<보기>의 ㉠에 해당하는 사례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문장을 이루기 위해 형태소들이 결합하다 보면 서로 다른 형태소에 속한 음운들이 만나기 마련이다. 이 과정에서 한 음운이 다른 음운으로 바뀌거나 없어지거나 첨가되는 등의 과정인 음운 변동이 일어나기도 한다. 일반적으로 어떤 음운들끼리 인접하는가에 따라 음운 변동이 나타나거나 연음이 일어나지만, 어떤 종류의 형태소와 결합하는지에 따라 발음 양상이 달라지기도 한다. ㉠뒤에 오는 형태소가 실질 형태소인지 형식 형태소인지에 따라 음운 변동의 적용 여부가 결정되기도 하는 것이다.

- ① ‘팔을 심으면 팔이 난다.’에서 ‘팔을’은 [파틀]로, ‘팔이’는 [파치]로 발음된다.
- ② ‘정원에는 꽃이 만발하고 꽃잎이 흩날렸다.’에서 ‘꽃이’는 [꼬치]로, ‘꽃잎이’는 [꼰니피]로 발음된다.
- ③ ‘내가 곧이 알아들은 대로 그녀가 곧이어 도착했다.’에서 ‘곧이’는 [고지]로, ‘곧이어’는 [고디어]로 발음된다.
- ④ ‘각자 뜻이야 모르겠지만, 오랜만에 가족끼리 뜻있는 시간을 보낸 듯하다.’에서 ‘뜻이야’는 [뜨시야]로, ‘뜻있는’은 [뜨딘는]으로 발음된다.
- ⑤ ‘문외한의 눈에도 상당히 값있어 보이는 도자기여서, 부르는 값을 흔쾌히 다 치렀다.’에서 ‘값있어’는 [가비써]로, ‘값을’은 [갑쓸]로 발음된다.



수능완성 152 38

밑줄 친 부분이 <보기>의 ㉠에 해당하는 예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형태소는 의미를 가진 가장 작은 말의 단위이다. 하나의 형태소가 하나의 음절로 온전히 실현되는 경우가 일반적이지만, ㉠두 개의 형태소가 결합하여 하나의 음절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땅을) 기-’에 어미 ‘-어’가 결합된 ‘(땅을) 기어’가 ‘겨’로 나타나거나, ‘(불에) 타-’에 선어말 어미 ‘-았-’이 결합된 ‘타았-’이 ‘땃-’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두 개의 형태소가 결합하여 하나의 음절로 나타난 경우에 해당한다.

- ① 그간 책상에는 먼지가 뽀얗게 쌓였더군.
- ② 그 선비는 행색이 너무나도 초라하였다.
- ③ 형은 매일 작은 수첩에 일기를 써 왔다.
- ④ 어둠 속에서 튀어나온 것은 호랑이었다.
- ⑤ 얼른 일어나 밥 먹고 학교에 가!

수능특강 102 3

<보기>의 (가)~(마)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가) 풋감, 풋배, 풋대추  
 (나) 소리꾼, 구경꾼, 눈치꾼  
 (다) 높이, 물이, 덜렁이  
 (라) 꺾이다, 놓이다, 파이다  
 (마) 끓이다, 녹이다, 줄이다

- ① (가)와 (나)에서, 접사가 어근에 붙어 어근과 같은 품사의 단어가 만들어진다.
- ② (나)와 (다)에서, 접사가 붙을 수 있는 어근의 품사는 한 가지로 제한된다.
- ③ (나)와 (다)에서, 접사가 붙은 단어는 ‘사람’이나 ‘행위’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 ④ (다)와 (라)에서, 접사가 어근에 붙어 어근과 다른 품사의 단어가 만들어진다.
- ⑤ (라)와 (마)에서, 접사는 서술어가 요구하는 문장 성분의 개수를 늘어나게 만든다.

수능특강 110 5

<보기>에서 선생님이 제시한 과제를 수행한 결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선생님: 파생어는 어근에 접사가 붙어 이루어진 말입니다. 파생어 형성의 결과는 품사나 문장 구조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어요.

- ㉠ 품사와 문장 구조에 변화가 없음.
- ㉡ 파생어가 되어 품사가 달라짐.
- ㉢ 파생어의 사용으로 문장 구조가 달라짐.
- ㉣ 위의 ㉡과 ㉢에 모두 해당함.

위 분류를 참고하여 다음의 파생어들이 ㉠~㉣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발표해 봅시다.

올벼, 힘껏, 뒤섞다, 담기다, 높다

- ① ‘벼’에 ‘올-’이 붙은 ‘올벼’는 ㉠에 해당합니다.
- ② ‘힘’에 ‘-껏’이 붙은 ‘힘껏’은 ㉡에 해당합니다.
- ③ ‘섞다’에 ‘뒤-’가 붙은 ‘뒤섞다’는 ㉢에 해당합니다.
- ④ ‘담다’에 ‘-기-’가 붙은 ‘담기다’는 ㉣에 해당합니다.
- ⑤ ‘높다’에 ‘-이-’가 붙은 ‘높이다’는 ㉣에 해당합니다.

수능특강 68 6

<보기>를 참고할 때,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합성어는 어근들의 의미 관계를 기준으로 대등 합성어, 종속 합성어, 융합 합성어로 구분할 수 있다. 대등 합성어는 결합하는 어근들의 의미가 대등한 관계를 이루는 것이고, 종속 합성어는 선행 어근이 후행 어근에 의미상 종속되는 관계를 이루는 것이다. 그리고 융합 합성어는 어근들이 결합하면서 각 어근이 본래 갖고 있던 의미에서 벗어나 합성어 전체의 의미가 새로운 의미를 갖는 것이다. ‘피와 땀’이라는 뜻의 ‘피땀’은 대등 합성어, ‘손에 들고 다니는 작은 가방’이라는 뜻의 ‘손가방’은 종속 합성어, ‘어른의 나이’를 뜻하는 ‘춘추(春秋)’는 융합 합성어이다.

㉠강산      ㉡밤낮      ㉢좌우      ㉣눈물      ㉣안팎

- ① ㉠은 ‘강과 산’이라는 뜻일 때는 종속 합성어이고, ‘나라의 영토’라는 뜻일 때는 융합 합성어이다.
- ② ㉡은 ‘밤과 낮’이라는 뜻일 때는 대등 합성어이고, ‘밤과 낮을 가리지 않고 늘’이라는 뜻일 때는 종속 합성어이다.
- ③ ㉢은 ‘왼쪽과 오른쪽’이라는 뜻일 때는 대등 합성어이고, ‘주위에 거느리고 있는 사람’이라는 뜻일 때는 융합 합성어이다.
- ④ ㉣은 ‘눈알 바깥면의 위에 있는 눈물샘에서 나오는 분비물’이라는 뜻일 때는 종속 합성어이고, ‘눈이 녹아서 된 물’이라는 뜻일 때는 융합 합성어이다.
- ⑤ ㉣은 ‘사물이나 영역의 안과 밖’이라는 뜻일 때는 대등 합성어이고, ‘어떤 수량이나 기준에 조금 모자라거나 넘치는 정도’라는 뜻일 때는 종속 합성어이다.

수능특강 225 4

<보기>를 바탕으로 할 때, ㉠의 예로 적절한 것은?

합성어는 어근과 어근이 결합하여 만들어진 단어이다. 합성 용언의 경우, 합성어 내부의 구성 방식에 대한 해석에 따라 나누어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멍이 들다.’의 뜻을 가진 합성 용언 ‘멍들다’는, 주어 ‘멍(이)’과 서술어 ‘들다’로 구성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처럼 합성 용언은 ‘주어+서술어’로 해석되는 것, ‘목적어+서술어’로 해석되는 것, ㉠ ‘부사어+서술어’로 해석되는 것 등으로 나눌 수 있다.

- ① 그늘지다      ② 남다르다      ③ 마음먹다      ④ 애쓰다      ⑤ 힘들다

수능특강 67 4

<보기>의 [탐구 과정]에서 [A]에 해당되는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 다음 밑줄 친 부사 ㉠~㉣을 [탐구 과정]에 따라 분류해 보자.

- 얏아 있던 아들이 ㉠어느새 일어나 물을 ㉡훌쩍훌쩍 마셨다.
- ㉢또다시 사건이 터진 후 그는 ㉣하루아침에 유명해졌다.
- 오빠를 언제 ㉣한번 찾아가 볼 수 있으면 ㉢진짜 좋을 것 같다.

↓

[탐구 과정]

|                        |   |     |
|------------------------|---|-----|
| 두 어근으로 구성된 합성어입니까?     | → |     |
| ↓ 예                    |   | 아니요 |
| 구성 성분에 명사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 → |     |
| ↓ 예                    |   | 아니요 |
| 구성 성분에 관형사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 → | [A] |
| ↓ 예                    |   | 아니요 |

- ① ㉠                      ② ㉡                      ③ ㉢, ㉣                      ④ ㉢, ㉣                      ⑤ ㉠, ㉡, ㉣

수능특강 68 5

<보기>에 제시된 ‘선생님’의 물음에 대한 답으로 적절한 것은?

선생님: 국어사전에서 단어를 찾다 보면 ‘살-얼음’, ‘버섯-볶음’처럼 표제어에 ‘-’ 표시가 제시된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살얼음’이 ‘살-’과 ‘얼음’으로, ‘버섯볶음’이 ‘버섯’과 ‘볶음’으로 양분될 수 있음을 나타냅니다. 이렇게 직접 구성 요소로 분석한다면 ‘살얼음’은 파생어이고, ‘버섯볶음’은 합성어입니다. 다음은 국어사전의 표제어에 ‘-’ 표시를 함께 제시한 것입니다. ㉠~㉣ 중 파생어로 판단할 수 있는 단어는 무엇일까요?

|          |          |          |
|----------|----------|----------|
| ㉠. 자리-바꿈 | ㉡. 미닫이-문 | ㉢. 재주넘-기 |
| ㉡. 첫-걸음  | ㉣. 현-신짝  |          |

- ① ㉠                      ② ㉡                      ③ ㉢                      ④ ㉣                      ⑤ ㉣

수능특강 114

<보기>의 [학습 활동]을 수행한 결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학습 활동] 다음 조건 중 두 가지를 골라, 그 조건을 충족하는 말을 만들어 보자.

- ㉠ 단어를 직접 구성 요소로 분석했을 때 ‘접사+어근’으로 분석된다.
- ㉡ 단어를 직접 구성 요소로 분석했을 때 ‘어근+접사’로 분석된다.
- ㉢ 직접 구성 요소로 분석된 접사는 어근의 품사를 바꾼다.
- ㉣ 직접 구성 요소로 분석된 접사는 어근의 품사를 바꾸지 않는다.

- |      |                                       |
|------|---------------------------------------|
| 조건   | 조건을 충족하는 말                            |
| ㉠, ㉡ | 내가 질문한 것을 도리어 나에게 되묻는 그가 한심했다.……………①  |
| ㉠, ㉢ | 시험 때문에 긴장을 해서 어젯밤에는 내내 선잠만 잤다.……………②  |
| ㉡, ㉢ | 그는 이야기를 다 듣고 나자 기가 막혀 헛웃음만 지었다.……………③ |
| ㉢, ㉣ | 그들은 도둑이 들어오지 못하게 담을 높일 작정이었다.……………④   |
| ㉢, ㉣ | 그 유원지에는 놀이꾼이 전국 각지에서 몰려들었다.……………⑤     |

수능특강 104 1,2

1~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단어를 그 구성 요소들로 나누는 것은 단어의 의미가 일차적으로 그것을 구성하는 요소들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이다. ‘섬사람’이 갖는 의미 ‘섬에 사는 사람’은 이 단어를 구성하는 두 개의 요소 ‘섬’과 ‘사람’으로부터 비롯된 것이다. 즉 ㉠구성 요소가 다르면 의미에 차이가 있는 별개의 단어가 된다. 그런데 ‘집밥’과 ‘밥집’의 예에서 알 수 있듯이, ㉡구성 요소가 같아도 구성 요소의 배열이 다르면 서로 다른 의미를 갖는 별개의 단어가 되기도 한다. 구성 요소가 셋 이상인 단어의 경우 그 의미는 구성 요소들 사이의 멀고 가까운 관계에 의해 결정된다. ‘큰부리새’는 ‘큰 부리를 가진 새’이지만, ‘큰가슴근’은 ‘큰 가슴에 있는 근육’이 아니라 ‘가슴에 있는 큰 근육’이다. 두 단어가 구성 요소의 배열 양상은 비슷하지만 의미의 양상은 다른 것은 구성 요소들 사이의 관계가 다르기 때문이다. ㉢어떤 단어의 구조를 직접 구성 요소로 분석할 때도 먼저 그 단어의 의미를 고려해야 한다. 예를 들어 ‘시부모’는 ‘시아버지와 시어머니’의 뜻을 갖는 단어이므로, ‘시’가 ‘부모’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로 분석한다.

그런데 단어의 구조가 늘 단어의 의미만 반영하는 것은 아니다. ‘명사+동사+접미사’ 형식을 갖는 복합 명사를 직접 구성 요소로 분석해 보자. ㉣‘해돋이’는 ‘해가 돋는’이 ‘현상’을 수식하는 의미 구조를 갖는다는 점을 고려하면 [[해돋이]와 같이 분석할 수 있다. 그러나 ‘편지꽃이’의 경우 ‘연필꽃이’, ‘책꽃이’와 같이 동일한 형식을 갖춘 복합 명사들이 많다는 점을 고려하면 ‘[편지[꽃[이]]]’와 같은 분석도 가능하다. ‘오래달리기’처럼 ‘부사+동사+접미사’ 형식을 갖는 복합 명사의 구조는 어떻게 분석할까? ‘오래 달리는 일’이라는 구성 요소들 사이의 의미적 관계, 그리고 부사는 동사를 수식하는 것이 보통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오래[달리]]기]’와 같이 분석할 수 있다. 그러나 ㉤‘오래달리기’와 같이 ‘달리기’가 이미 존재하는 단어인 경우에는 ‘[오래[달리[기]]]’와 같은 분석도 가능하다. 이는 ‘오래달리기’가 ‘이어달리기’ 등과 같이 달리기 경기 가운데 하나라는 인식과도 부합한다.

㉥전체 복합어를 직접 구성 요소로 분석했을 때 직접 구성 요소가 모두 어근이면 합성어로, 직접 구성 요소 가운데 어느 하나가 접사이면 파생어로 그 유형을 분류한다. 그런데 ‘해돋이’, ‘편지꽃이’와 같은 단어들은 직접 구성 요소 분석으로도 합성어인지 파생어인지 판단하기 어렵다. ‘해돋이’에서 [-이]가 접사임에는 이견이 없으나 [해돋]은 ‘해(가) 돋-’의 의미이므로 단어가 아니라 구로 볼 수 있다. 또 ‘편지꽃이’에서 [편지]가 어근임은 확실하나 [꽃이]는 하나의 단어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이를 어근으로 보아야 할지 판단이 쉽지 않다.

1. ㉠~㉥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에 해당하는 예로 ‘산짐승’이 ‘산에 사는 짐승’의 의미를, ‘들짐승’은 ‘들에 사는 짐승’의 의미를 갖는 것을 들 수 있다.
  - ② ㉡에 해당하는 예로 ‘유리창’과 ‘창유리’를, 해당하지 않는 예로 ‘위아래’와 ‘아래위’를 들 수 있다.
  - ③ ㉢에 따라 직접 구성 요소 분석을 할 때, ‘큰부리새’의 직접 구성 요소는 ‘큰부리’와 ‘새’이고, ‘큰가슴근’의 직접 구성 요소는 ‘큰’과 ‘가슴근’이다.
  - ④ ㉣과 같은 방식으로 분석할 때, ‘졸넘기’는 ‘[[졸넘]기]’의 구조로 분석할 수 있다.
  - ⑤ ㉤과 같은 방식에 따라 ‘오래달리기’의 직접 구성 요소를 ‘오래’와 ‘달리기’로 분석해도 이를 합성어로 분류하기 어려운 이유는 ‘달리기’를 어근으로 간주할 수 없기 때문이다.

2. ㉥에 따를 때, <보기>의 ㉦, ㉧와 유형 및 구조가 모두 일치하는 단어를 올바르게 묶은 것은?

셋 이상의 형태소로 구성된 단어는 각 단계에서 분석되는 직접 구성 요소를 대상으로 그 역할에 따라 어근과 접사를 구분한다. 이를테면 ‘㉦코웃음’은 먼저 두 개의 구성 요소 ‘코’와 ‘웃음’으로 분석되는데, 모두 실질적 의미를 갖는 어근들이다. 그리고 ‘웃음’은 다시 두 개의 구성 요소 ‘웃-’과 ‘-음’으로 분석되는데, ‘웃-’은 어근이고 ‘-음’은 접사이다. 반면 ‘㉧뜨개질’은 먼저 두 개의 구성 요소 ‘뜨개’와 ‘-질’로 분석된다. 그리고 ‘뜨개’는 다시 두 개의 구성 요소 ‘뜨-’와 ‘-개’로 분석되는데, ‘뜨-’는 어근이고 ‘-개’는 접사이다.

- |            |            |           |            |             |   |
|------------|------------|-----------|------------|-------------|---|
| ㉦          | ㉧          | ㉦         | ㉧          | ㉦           | ㉧ |
| ① 놀이터 민물고기 | ② 살얼음 오르막길 | ③ 싸움꾼 헛발질 | ④ 갈비찜 잠꾸러기 | ⑤ 거짓말쟁이 돈벌이 |   |

수능특강 62 1

<보기>에 제시된 ㄱ~ㄷ에 따라 단어를 분류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품사의 분류]**

품사는 단어의 형태 변화 여부, 문장 내에서 해당 단어가 수행하는 기능(역할), 단어 부류가 지닌 의미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될 수 있다.

- ㄱ. 가변어, 불변어
- ㄴ. 용언, 체언, 수식언, 관계언, 독립언
- ㄷ. 동사, 형용사, 명사, 대명사, 수사, 관형사, 부사, 조사, 감탄사

- ① ㄱ에 따라 분류하면, ‘그도 오늘이나 내일 올 것이다.’의 ‘이다’는 가변어이고, ‘도’, ‘이나’는 불변어이다.
- ② ㄴ에 따라 분류하면, ‘오랜만에 깊게 잠.’의 ‘잠’은 용언이지만, ‘오랜만에 깊은 잠을 잤다.’에서 ‘잠’은 체언이다.
- ③ ㄴ에 따라 분류하면, ‘그는 연기가 미숙할 뿐이다.’의 ‘뿐’은 체언이지만, ‘나에게는 너뿐이다.’의 ‘뿐’은 관계언이다.
- ④ ㄷ에 따라 분류하면, ‘우리 거기에서 만나자.’의 ‘거기’는 부사이지만, ‘당장 거기 서!’의 ‘거기’는 명사이다.
- ⑤ ㄷ에 따라 분류하면, ‘중학생인 첫째가 첫 시험을 보았다.’의 ‘첫째’는 명사이고, ‘첫’은 관형사이다.

수능특강 64 4

<보기>의 ㉠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품사의 통용은 하나의 단어가 둘 이상의 품사로 쓰이는 경우를 일컫는 말이다. 품사의 통용에 해당하는 사례로 ‘여섯’을 들 수 있다. 가령 ‘굴 여섯 개를 먹었다.’에서 ‘여섯’은 관형사로 쓰인 것이지만 ‘여섯에서 하나를 빼면 다섯이다.’에서 ‘여섯’은 수사로 쓰인 것이다. 하지만 품사가 다르더라도 두 단어가 동음이의어인 경우에는 품사의 통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예컨대 ‘약이 쓰다.’와 ‘글씨를 쓰다.’에 쓰인 ‘쓰다’의 품사는 각각 형용사, 동사로 다르지만, 둘은 동음이의어에 해당하므로 품사의 통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① 만큼 형은 밥을 주는 만큼 받았다.  
나는 밥을 당신만큼 받았다.
- ② 잘못 그가 잘못을 저질렀다.  
소금을 잘못 넣었더니 국이 짜다.
- ③ 마저 컵에 물을 마저 따르다.  
막내마저 출가를 시키니 허전하다.
- ④ 저 저 사람이 바로 우리 언니이다.  
저하고 그 사람은 쌍둥이 자매입니다.
- ⑤ 모두 식구 모두가 양로원에 돈을 기부했다.  
내 돈을 모교에 모두 기부했다.

수능특강 62 2

<보기>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문장으로 적절한 것은?

- 앞에 나온 체언을 다시 나타내는 대명사를 포함할 것.
- 반드시 관형어의 꾸밈을 받아야 하는 명사를 포함할 것.

- ① 그 가게에는 남자가 한 명도 없었다.
- ② 형은 자기가 먼저 집에 가겠다고 했다.
- ③ 아저씨는 의지할 데가 없는 사람이었다.
- ④ 누나는 저 하고 싶은 대로만 하려고 했다.
- ⑤ 아버지는 당신의 소싯적이 그림다고 하셨다.

수능완성 203 38

<보기 1>의 ㉠에 들어갈 수 있는 문장을 <보기 2>에서 모두 고른 것은?

사람을 가리키는 대명사인 인칭 대명사 가운데 재귀 대명사는 선행 내용에 제시된 사람을 도로 가리키는 3인칭 대명사이다. 우리말 재귀 대명사에는 ‘저’, ‘저희’, ‘당신’ 등이 있는데, 이들은 동일한 형태로 1인칭이나 2인칭 대명사로도 쓰일 수 있어 사용에 주의해야 한다. 예를 들어 ( ㉠ )에서 밑줄 친 대명사는 재귀 대명사이다.

- ㉠ 자네는 제 일을 남에게 시키지 말게.
- ㉡ 동생은 뭐든지 제가 하고 싶은 일만 해.
- ㉢ 저희 때문에 부모님께서 고생하시는 것 같습니다.
- ㉣ 그 녀석들도 이제 다 컸으니 저희끼리 잘 다닐 거요.
- ㉤ 우리는 당신의 고귀한 희생을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 ① ㉠, ㉡, ㉢
- ② ㉠, ㉡, ㉤
- ③ ㉡, ㉢, ㉣
- ④ ㉡, ㉣, ㉤
- ⑤ ㉢, ㉣, ㉤

수능특강 64 5

<보기>의 ㉠, ㉡에 해당하는 예가 바르게 짝지어지지 않은 것은?

용언의 어간에 어미가 결합하는 것을 활용이라고 한다. 용언 중에는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아’나 ‘-어’가 결합하여 활용할 때, ㉠규칙 활용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불규칙 활용을 하는 경우도 있다.

- |   | ㉠에 해당하는 예 | ㉡에 해당하는 예 |
|---|-----------|-----------|
| ① | (죽을) 썬다   | (밥을) 푸다   |
| ② | (쌀을) 씻다   | (커피를) 적다  |
| ③ | (외투를) 입다  | (친구를) 돕다  |
| ④ | (음식을) 받다  | (정답을) 묻다  |
| ⑤ | (품질이) 좋다  | (장작을) 넣다  |

수능특강 91 1

<보기>의 ㉠~㉤에 대한 분석으로 적절한 것은?

어근은 어떤 단어에서 실질적인 의미를 나타내는 중심 부분이고, 어간은 용언의 활용에서 변하지 않는 부분이다. 어근은 접사와 결합하고, 어간은 어미와 결합하는 차이도 있다. 예를 들어 '짓밟다'에서 '밟-'은 단어의 실질적인 의미를 나타내는 중심 부분으로 접사 '짓-'과 결합하므로 어근이고, '짓밟-'은 '짓밟아, 짓밟고, 짓밟으니'와 같은 활용에서 변하지 않는 부분으로 어미와 결합하므로 어간이다. ㉠~㉤을 분석하여 어근과 어간을 분류해 보자.

|       |       |       |        |       |
|-------|-------|-------|--------|-------|
| ㉠ 익히다 | ㉡ 맞먹다 | ㉢ 덧대다 | ㉣ 굶주리다 | ㉤ 들볶다 |
|-------|-------|-------|--------|-------|

- |     | 어근     | 어간  |
|-----|--------|-----|
| ① ㉠ | 익히-    | 익히- |
| ② ㉡ | 맞-, 먹- | 먹-  |
| ③ ㉢ | 대-     | 덧대- |
| ④ ㉣ | 굶-     | 주리- |
| ⑤ ㉤ | 들-, 볶- | 들볶- |

수능완성 92 3

<보기>의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선생님: 우리는 지난 시간에 어미의 종류에 대해 공부했어요. 어미는 위치에 따라 선어말 어미와 어말 어미로 나뉘고, 어말 어미는 다시 기능에 따라 종결 어미, 연결 어미, 전성 어미로 나뉘는 것 기억하나요? 다음 문장에서 어미를 먼저 정확히 분석해 보고, 사용된 어미의 종류에 대해 설명해 봅시다.

- 이 약을 미리 먹었으면, 병이 벌써 ㉠나았겠다.
- 도서관이 ㉡가까웠으므로 쉽게 책을 빌려 보았다.
- 맑게 ㉢갠 하늘을 보자 발걸음이 더욱 가벼워졌다.

- ① ㉠: 두 개의 선어말 어미가 쓰였군.
- ② ㉡: 어말 어미로 종결 어미가 쓰였군.
- ③ ㉢: 모두 세 개의 어미가 쓰였군.
- ④ ㉣: 어말 어미로 연결 어미가 쓰였군.
- ⑤ ㉣: 하나의 전성 어미가 쓰였군.

수능특강 65 6

<보기>의 ㉠~㉣을 분석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용언은 쓰임에 따라 본용언과 보조 용언으로 구분할 수 있다. 본용언은 문장의 주체를 주되게 서술해 주는 말로 보조 용언의 도움을 받는 반면, 보조 용언은 본용언과 연결되어 그것의 뜻을 보충하는 역할을 하는 용언으로 자립성이 없다. 한편 합성 용언은 본동사와 보조 동사가 결합하는 방식 등으로 만들어지는데, 이렇게 만들어진 합성 용언은 단독으로 쓰이기도 하고, 보조 용언의 도움을 받는 본용언으로 쓰이기도 한다.

- 친구들이 모두 ㉠가 버리니 그가 더 이상 내 손을 ㉡잡아당기지 못했다.
- 수의학을 전공한 형이 밀림에서 ㉢굶주리고 있던 사자를 ㉣도와주었다.
- 한 달이나 지났으니 이제는 오빠가 집에 ㉤오지 않을까 싶었다.

- ① ㉠: 한 개의 본용언과 한 개의 보조 용언으로 구성된 말이다.
- ② ㉡: 본동사와 보조 동사가 결합하여 만들어진 한 개의 본용언과 한 개의 보조 용언으로 구성된 말이다.
- ③ ㉢: 합성 용언이 본용언으로 기능하며 한 개의 보조 용언과 함께 쓰인 말이다.
- ④ ㉣: 본동사와 보조 동사가 결합하여 만들어진 합성 용언이 단독으로 쓰인 말이다.
- ⑤ ㉤: 한 개의 본용언과 두 개의 보조 용언으로 구성된 말이다.

수능완성 258 37, 38

1~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합성 동사는 ‘본받다’, ‘앞서다’, ‘돌아오다’ 등과 같이, 둘 이상의 어근이 결합된 동사이다. 이들 합성 동사는 대응되는 구 구성을 상정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본받다’는 ‘본을 받다.’와 같은 구성과 대응되고, ‘앞서다’ 역시 ‘앞에 서다.’와 대응된다. ‘돌아오다’는 ‘모퉁이를 돌아 집에 왔다.’와 같은 문장을 고려하면, ‘돌아오다’와 대응되는 합성 동사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합성 동사와 구 구성의 관련성으로 인해, ‘-아/-어’로 용언 어간이 연결된 구성이 합성 동사인 지 구 구성인지 구분이 쉽지 않을 수 있다. 특히 보조 용언이 쓰인 구 구성의 경우, 보조 용언을 앞말과 띄어 쓰는 것이 원칙이지만, 붙여 쓸 수도 있어 더욱 구분이 어렵다. 이때는 @‘-아/-어’ 뒤에 ‘서’가 붙을 수 있으면 구 구성, 그렇지 못하면 합성 동사 또는 보조 용언 구성으로 판별한다. 그리고 보조 용언은 합성 동사를 구성하는 어근보다 그 의미가 더 추상적이라는 점을 통해 합성 동사와 보조 용언 구성을 구분할 수 있다.

그런데 모든 합성 동사가 이처럼 대응되는 구 구성을 갖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남의 말을 듣고 그 뜻을 알다.’의 의미를 갖는 ‘알아듣다’는 ‘알다’와 ‘듣다’의 순서의 결합으로는 그 의미를 적절히 도출할 수 없다. 들은 이후에 알게 된다는 의미를 고려할 때, ‘알아듣다’에서는 ‘알다’와 ‘듣다’의 결합이 거꾸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이다. 또한 ‘깨물다’의 경우, ‘사탕을 깨물다.’는 ‘사탕을 깨어서 물다.’라는 대응되는 구 구성을 상정할 수 있으나 ‘혀를 깨물다.’는 ‘깨다’와 ‘물다’의 두 동작을 상정할 수 없으므로 대응되는 구 구성이 없다고 할 수 있다.

한편 합성 동사를 구성하는 어근의 결합 방식이 일반적인 문장 구성 방식과 같은지 여부에 따라 합성어를 통사적 합성어와 비통사적 합성어로 구분하기도 한다. 비통사적 합성어는 일반적인 문장 구성 방식이 아니므로 애초에 대응되는 구 구성을 상정할 수 없다. 이에 비해 통사적 합성어는 대응되는 구 구성이 있는 경우도 있으나, ㉔통사적 합성어이지만 대응되는 구 구성이 없는 경우도 있다.

1. ㉔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사과를 깎아 먹었다.’에서 ‘깎아 먹다’는 구 구성이다.
  - ② ‘학생이 연필을 가져갔다.’에서 ‘가져가다’는 합성 동사이다.
  - ③ ‘문을 열어 놓아라.’에서 ‘열어 놓다’는 보조 용언 구성이다.
  - ④ ‘편지를 부쳐 주었다.’에서 ‘부쳐 주다’는 보조 용언 구성이다.
  - ⑤ ‘아이는 돌멩이를 집어 던졌다.’에서 ‘집어 던지다’는 보조 용언 구성이다.

2. ㉔에 해당하는 예를 <보기>의 ㉑~㉔에서 모두 고른 것은?

㉑: (밭줄을) 잡아당기다.  
 ㉒: (땅을) 팔아먹다.  
 ㉓: (시냇물을) 건너뛰다.  
 ㉔: (재산을) 긁어모았다.

- ① ㉑, ㉒
- ② ㉑, ㉓
- ③ ㉑, ㉔
- ④ ㉒, ㉓
- ⑤ ㉒, ㉔



수능특강 63 3

㉠이 포함된 예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이다<sup>3</sup> 「조사」  
 「1」 ((체언 뒤에 붙어)) 주어가 지시하는 대상의 속성이나 부류를 지정하는 뜻을 나타내는 서술격 조사.  
 예) 이것은 책이다.  
 「2」 ((접미사 '-적'이 붙은 명사 뒤에 붙어)) 주어의 속성을 나타내는 서술격 조사.  
 예) 그는 양심적이다.  
 「3」 ㉠((일부 명사 뒤에 붙어)) 용언처럼 주체의 행동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서술격 조사.  
 예) 너는 어떻게 입만 열면 불평이니?

ㄱ. 침묵은 금이다.  
 ㄴ. 저 언덕에 있는 것은 학교이다.  
 ㄷ. 나는 나의 우유부단한 성격이 늘 불만이다.  
 ㄹ. 누나는 배가 고프면 어떡하냐며 내내 걱정이다.

- ① ㄱ, ㄴ      ② ㄴ, ㄷ      ③ ㄷ, ㄹ      ④ ㄱ, ㄴ, ㄷ      ⑤ ㄱ, ㄷ, ㄹ

수능완성 92 2

<보기>는 조사의 쓰임을 확인하기 위해 수집한 자료이다. ㉠~㉤의 밑줄 친 조사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당국에서 새로운 경제 정책을 폈다.  
 ㉡ 물이 얼음이 되었다.  
 ㉢ 새야 새야 파랑새야.  
 ㉣ 오늘까지만 등산을 해.  
 ㉤ 개는 늑대와 비슷하다.

- ① ㉠: '에서'는 주격 조사로 쓰였다.  
 ② ㉡: '이'는 보격 조사로 쓰였다.  
 ③ ㉢: '야'는 호격 조사로 쓰였다.  
 ④ ㉣: '까지'는 부사격 조사로 쓰였다.  
 ⑤ ㉤: '와'는 부사격 조사로 쓰였다.

수능특강 69 1

<보기>의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한 것은?

문장 성분은 한 문장을 구성하는 요소로, ‘그녀는 바둑을 잘 둔다.’에서의 ‘그녀는’, ‘바둑을’, ‘잘’, ‘둔다’ 따위이다. 이때 문장 성분은 ‘그녀는’, ‘바둑을’처럼 체언에 조사가 결합해 이루어지기도 하고, ‘잘’, ‘둔다’처럼 한 단어가 단독으로 문장 성분을 이루기도 한다. 한편 체언에 서술격 조사가 결합한 형태나 용언은 그 활용형이 다양한 문장 성분으로 쓰임에 유의해야 한다.

◦점심을 많이 먹었는데 ㉠간식도 계속 먹고 싶네.  
 ◦저러다가 저거 ㉡싸움 되겠는데, 말려야 하지 않아?  
 ◦내가 너에게 한 설명은 ㉢상식적인 이야기에 불과하다.  
 ◦배달 음식을 ㉣아주 안 먹을 수는 없겠지만 줄여야 한다.  
 ◦선수 여러분, ㉤중요한 것은 역경에 꺾이지 않는 마음입니다.

- ① ㉠: 명사가 보조사와 결합해 주어로 쓰였다.
- ② ㉡: 명사가 조사와 결합 없이 목적어로 쓰였다.
- ③ ㉢: 관형사가 격 조사와 결합해 서술어로 쓰였다.
- ④ ㉣: 부사가 관형사를 수식하는 부사어로 쓰였다.
- ⑤ ㉤: 형용사가 명사를 수식하는 관형어로 쓰였다.

수능특강 69 2

<보기>의 ㉠과 ㉡이 모두 포함된 문장으로 적절한 것은?

문장 성분 중 관형어와 부사어는 다른 말을 수식하는 기능을 하므로 부속 성분이라 한다. 부속 성분은 대개 생략할 수 있지만, ㉠서술어가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부사어와 ㉡의존 명사를 수식해 주는 관형어는 생략할 수 없다.

- ① 누구나 노력한 만큼 대가를 얻는 법이다.
- ② 나는 대학생이 되는 대로 여행을 떠나겠다.
- ③ 나는 이따 저녁에 먹을 것을 냉장고에 넣었다.
- ④ 그는 관광단 일행과 헤어져 혼자 숙소로 향했다.
- ⑤ 누나는 동생에게 생일 선물로 손목시계를 주었다.

수능특강 70 3

<보기>의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관형어는 체언 앞에서 해당 체언을 수식하는 문장 성분이다. 관형사는 언제나 관형어로 쓰이며, 체언은 조사 '의'와 함께 관형어를 이룰 수도 있고 조사 없이 관형어가 될 수도 있다. 용언 어간에 관형사형 어미 '-(으)ㄴ, -는, -(으)ㄹ, -던'이 붙어서 관형어로 쓰이기도 한다. '내가 살던 동네에는 멋진 호수가 있었다.'에서 '내가 살던'은 주어와 서술어를 갖춘 절로, '내가 살던' 전체가 관형어이다. '멋진'은 '멋진'의 주어로 쓰여야 할 대상인 '호수'가 수식을 받는 체언인 '호수'와 동일하기 때문에 생략된 것이므로, 역시 관형사절로 볼 수 있다.

㉠ 우리 학교는 매우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  
 ㉡ 그녀의 얼굴에는 묘하게 어두운 구석이 있었다.  
 ㉢ 광수가 회장 선거에 출마한다는 소문이 돌았다.

- ① ㉠: '우리'는 대명사가 조사 없이 관형어로 쓰인 것이다.
- ② ㉠: '매우'와 '오랜'은 둘 다 '역사'를 수식하는 관형어이다.
- ③ ㉡: '그녀의'는 대명사에 조사가 결합하여 이루어진 관형어이다.
- ④ ㉡: '어두운'은 주어가 생략된 관형사절이 관형어로 쓰인 것이다.
- ⑤ ㉢: '광수가 회장 선거에 출마한다는'은 '소문'을 수식하는 관형어이다.

수능특강 71 4

<보기 1>을 참고하여 <보기 2>의 ㉠~㉣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문장(절)에서 필수적으로 쓰여야 하는 성분의 개수와 종류는 서술어의 의미에 따라서 정해지는데, 특히 서술어가 필요로 하는 문장 성분의 개수를 서술어의 자릿수라고 한다. 서술어의 자릿수는 고정된 경우도 있지만 그 서술어가 문장(절)에서 어떤 의미로 사용되는가에 따라 달라지기도 한다. 그런데 서술어는 일정한 자릿수를 요구할 뿐 아니라 특정한 자리에 일정한 속성을 가진 체언만이 올 수 있도록 제한하기도 한다. 가령 '웃다'나 '울다' 등의 주어 자리에는 사람이나 동물 같은 유정 명사가 오는 것이 원칙이다. 또 '마시다'의 목적어 자리에는 물이나 차 따위의 액체만이 올 수 있지만 '먹다'의 목적어 자리에는 그러한 액체를 포함한 음식 전반이 올 수 있다.

㉠ 반짝이는 새 구두를 본 그녀가 눈망울을 반짝였다.  
 ㉡ 그는 세계 평화에 기여한 공로로 노벨 평화상을 수상했다.  
 ㉢ 연구소장은 정부에서 실시한 조사 결과를 언론에 자세히 밝혔다.  
 ㉣ 어제는 웃던 승자가 오늘은 울 수 있는 법이니 자만해서는 안 된다.  
 ㉤ 남편은 식사할 때 항상 국물부터 마시고 밥은 그다음에 천천히 먹었다.

- ① ㉠: '반짝이는'과 '반짝였다'는 필요로 하는 문장 성분의 개수가 다르다.
- ② ㉡: '기여한'과 '수상했다'는 모두 두 자리 서술어이지만, 필요로 하는 문장 성분의 종류는 다르다.
- ③ ㉢: '실시한'과 '밝혔다'는 모두 주어와 목적어, 부사어를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세 자리 서술어이다.
- ④ ㉣: '웃던'과 '울'은 필요로 하는 문장 성분의 개수와 종류가 같고, 주어로 선택할 수 있는 체언의 속성도 유정 명사로 동일하다.
- ⑤ ㉤: '마시고'와 '먹었다'는 필요로 하는 문장 성분의 개수와 종류가 같으나, 목적어로 선택할 수 있는 체언의 속성은 다르다.

수능완성 96 2

밑줄 친 말이 <보기>의 ㉠에 해당하는 예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서술어의 자릿수는 서술어의 기능 및 의미에 의해 결정된다. 그래서 간혹 다의어에서 ㉠어떤 서술어가 의미에 따라 서로 다른 자릿수를 가지기도 한다. 예를 들어 ‘멈추다’는 ‘차가 멈추었다.’와 같이 사물이 스스로 움직임을 그친다는 뜻의 문장에서는 한 자리 서술어이고, ‘나는 차를 멈추었다.’와 같이 다른 사물의 움직임을 그치게 한다는 뜻의 문장에서는 두 자리 서술어이다.

- ① 이 방은 책을 읽기에 너무 어둡다.  
선생님께서서는 통계 처리에 어둡다.
- ② 수리를 하니까 자동차 바퀴가 잘 돈다.  
지구가 태양을 돈다는 사실은 진리이다.
- ③ 그는 황무지를 녹지로 만들었다.  
동생이 종이로 인형을 만들었다.
- ④ 마법사가 주문을 외우자 돌이 저절로 움직였다.  
아무리 힘을 써도 그는 돌을 움직일 수 없었다.
- ⑤ 나는 누나가 남긴 떡을 다 먹었다.  
이 옷감에는 풀이 뺏뺏하게 먹었다.

수능특강 77 5

<보기>의 ㉠~㉣에 해당하는 예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명사절은 용언 어간에 명사형 어미 ‘-(으)ㄴ’, ‘-기’가 붙어 이루어진다. 명사절은 다양한 문장 성분으로 쓰일 수 있는데, 이때 격 조사나 보조사가 결합하기도 하고 조사가 결합하지 않기도 한다.

| 실현된 문장 성분   | 주어 | 목적어 | 부사어 |
|-------------|----|-----|-----|
| 조사 결합 양상    |    |     |     |
| 격 조사와 결합    | ㉠  |     | ㉣   |
| 보조사와 결합     | ㉡  | ㉢   |     |
| 조사와 결합하지 않음 |    | ㉤   |     |

- ① ㉠: 그가 이 사건의 범인임이 밝혀졌다.
- ② ㉡: 정부에서 일을 그렇게 처리함은 부당하다.
- ③ ㉢: 나는 혼자 있기를 좋아하고 낮을 가리는 편이다.
- ④ ㉣: 학생들은 지금 바로 강당으로 모여 주시기 바랍니다.
- ⑤ ㉤: 지금은 영화를 보러 가기에 이미 너무 늦은 시간이다.

수능특강 82 6

<보기 1>을 참고할 때, <보기 2>의 ㉠~㉥에 들어갈 문장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인용 표현은 크게 직접 인용과 간접 인용으로 나눌 수 있다. 직접 인용의 인용절은 마침표 등을 모두 표시하고 따옴표로 묶은 뒤 ‘(이)라고’를 붙인다. 간접 인용절은 말한 그대로를 따오지 않고 화자의 관점에 따라 변형해서 따온 것이므로, 본래 문장에서는 상대 높임의 등급에 따라 종결 어미가 선택되었지만 인용절 속에서는 문장의 종류에 따라서만 어미 선택이 달라진다. 평서문은 ‘-다고’로, 의문문은 동사의 경우 ‘-(느)냐고’, 형용사의 경우 ‘-(으)냐고’로, 명령문은 ‘-(으)라고’, 청유문은 ‘-자고’로 통합되어 표현된다. 감탄문은 간접 인용을 할 때 평서문으로 인용된다. 또 간접 인용절은 화자의 현재 관점 및 시점에서 기술되기 때문에, 인칭 대명사나 시간 표현이 달라진다.

| 직접 인용                                   |   | 간접 인용 |
|---|---|-------|
| 연경이는 “꽃이 참 예쁘구나!”라고 감탄했다.               | → | ㉠     |
| 수지가 나에게 “언제 집에 가니?”라고 물었다.              | → | ㉡     |
| 민지가 현수에게 “나도 힘이 세.”라고 말했다.              | → | ㉢     |
| 위원회는 승아에게 “네가 학교 대표로 선발되었다.”라고 알렸다.     | → | ㉣     |
| 담임 선생님께서 어제 학생들에게 “내일은 일찍 와라.”라고 말씀하셨다. | → | ㉤     |

- ① ㉠: 연경이는 꽃이 참 예쁘다고 감탄했다.
- ② ㉡: 수지가 나에게 언제 집에 가냐고 물었다.
- ③ ㉢: 민지가 현수에게 자기도 힘이 세다고 말했다.
- ④ ㉣: 위원회는 승아에게 네가 학교 대표로 선발되었다고 알렸다.
- ⑤ ㉤: 담임 선생님께서 어제 학생들에게 오늘은 일찍 오라고 말씀하셨다.

수능특강 103 6

<보기>의 (가)~(마)를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가) 바지가 기장이 너무 길다.  
 (나) 나는 문법 실력이 늘었음을 느꼈다.  
 (다) 내가 그때 본 광경은 무척이나 아름다웠다.  
 (라) 김 씨가 다리를 다쳤다는 소식을 듣고, 나는 얼른 사고 현장으로 갔다.  
 (마) 모두가 버스가 어서 오기를 바라는데, 도로의 차들은 좀처럼 움직이지 않았다.

- ① (가)에는 서술절이 있고, (마)에는 서술절과 명사절이 있다.
- ② (가)에서는 부사가 부사어로 쓰였고, (라)에서는 부사절이 부사어로 쓰였다.
- ③ (나)와 달리 (다), (라), (마)에는 체언을 꾸미는 관형어가 있다.
- ④ (다)의 관형사절과 달리 (라)의 관형사절은 서술어가 요구하는 문장 성분을 다 갖추었다.
- ⑤ (라)와 (마)에서 어미로 연결된 두 절의 사건은 동시에 일어나고 있다.

수능특강 109 3

<보기>의 학습 활동을 수행한 결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겹문장은 다른 문장 속에 들어가 안긴절로 쓰일 수 있으며, 그 안긴절은 안은문장에서 문장 성분으로 쓰인다. 다음에 제시된 문장에서 밑줄 친 겹문장에 대해 설명해 보자.

- 윤서는 ㉠비가 와서 땅이 젖었음을 그제야 알게 되었다.
- 지민이는 ㉡해가 지고 비도 내리기에 산에서 내려왔다.
- 그분은 ㉢그 해가 저물고 새해가 오기 전에 고국을 떠났다.
- 저는 ㉣몸이 튼튼하고 마음도 따뜻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 우리는 ㉤날이 좋으면 대공원으로 소풍을 갈 예정이다.

- ① ㉠~㉤ 모두 전성 어미와 결합하여 안긴절이 되었다.
- ② ㉠, ㉡, ㉢는 모두 명사절이다.
- ③ ㉠, ㉣, ㉤는 모두 부속 성분으로 쓰였다.
- ④ ㉢, ㉣, ㉤는 모두 관형어로 쓰였다.
- ⑤ ㉠, ㉡는 모두 조사와 결합하여 문장 성분으로 쓰였다.

수능특강 113 3

다음 ㄱ~ㄴ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학생: ‘형이 축구를 한다.’와 ‘형이 웃는다.’를 합친 문장을 만들어 줘.

문법 인공 지능: ‘형이 축구를 한다.’와 ‘형이 웃는다.’를 합친 문장을 다음과 같이 만들어 보았습니다.

- 웃는 형이 축구를 한다. ㄱ
- 형이 축구를 해서 웃는다. ㄴ
- 축구를 하는 형이 웃는다. ㄷ
- 형이 축구를 하면 웃는다. ㄹ
- 형이 축구를 하니까 웃는다. ㅁ

- ① ㄱ: ‘형이 웃는다.’를 명사절로 바꾸어 명사절을 가진 안은문장을 만들었다.
- ② ㄴ: ‘형이 축구를 한다.’를 서술절로 바꾸어 서술절을 가진 안은문장을 만들었다.
- ③ ㄷ: ‘형이 웃는다.’를 관형사절로 바꾸어 관형사절을 가진 안은문장을 만들었다.
- ④ ㄹ: ‘형이 축구를 한다.’와 ‘형이 웃는다.’가 종속적으로 연결된 이어진문장을 만들었다.
- ⑤ ㅁ: ‘형이 축구를 한다.’와 ‘형이 웃는다.’가 대등하게 연결된 이어진문장을 만들었다.

수능완성 230 37

<보기>는 인용 표현에 관한 수업의 한 장면이다. [A]에 들어갈 말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선생님: 직접 인용 표현은 원 발화자의 말이나 생각이 그대로 표현된 것이고, 간접 인용 표현은 화자의 현재 관점에서 표현된 것입니다. 글에서는 직접 인용된 내용 앞뒤에 따옴표를 씁니다. 직접 인용을 간접 인용으로 바꿀 때에는 시간 표현, 공간 표현, 지시 표현, 높임 표현, 종결 표현, 인용 조사 등에서 변화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의 직접 인용 표현을 간접 인용 표현으로 바꾸면 ㉠~㉡이 어떻게 바뀔지 말해 볼까요?

할머니께서는 나에게 어저께 그 공원에서 “㉠네 동생이 심심해해서 ㉡내가 ㉢어저께 ㉣네 동생을 데리고 ㉤여기서 ㉥놀았어.”라고 말씀하셨다.

학생: 네, 선생님 ( [A] )

선생님: 그래요, 잘 대답했어요.

- ① ㉠은 ‘할머니’가 아닌 ‘나’의 관점에서 본 대상으로 표현되어야 하니까 ‘내’로 바꿉니다.
- ② ㉡은 ‘할머니’를 높이는 재귀 대명사를 사용해야 하니까 ‘당신께서’로 바꿉니다.
- ③ ㉢은 발화 시점이 기준이 아니라 현재 시점이 기준이 되어야 하니까 ‘그저께’로 바꿉니다.
- ④ ㉤은 ‘내’가 현재의 관점에서 본 ‘그 공원’의 위치를 표현해야 하니까 ‘거기서’로 바꿉니다.
- ⑤ ㉥은 종결 표현, 인용 조사, 높임 표현이 간접 인용에 맞게 쓰여야 하니까 따옴표가 없어지고 ‘놀았다고’로 바꿉니다.

수능특강 74 2

<보기>의 ㉠의 예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하나의 절이 관형사절로 다른 문장에 안길 때, 원래 있던 필수적 문장 성분이 생략되는 경우가 있다. ‘내가 책을 읽었다.’가 ‘형이 책을 가져갔다.’에 관형사절로 안기는 예를 보자. ‘책’과 같이 두 절에 동일 요소가 있을 때 그것이 관형사절에서 생략되어, 안은문장은 ‘형이 내가 읽던 책을 가져갔다.’와 같이 나타난다. 이때 관형사절에서 생략되어 있는 ‘책’은 관형사절 속에서 목적어에 해당한다.

- ① 그는 하늘에 뜬 태양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 ② 진실이 아닌 말로 사람의 마음을 현혹하지 마라.
- ③ 어머니가 귀에 이어폰을 낀 딸을 손짓하여 불렀다.
- ④ 나는 몽룡이가 춘향이와 헤어진 사실을 이제 알았다.
- ⑤ 이 책에 달린 제목은 책의 내용과 잘 어울리지 않는다.

수능특강 78 6

<보기>의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겉문장은 둘 이상의 절로 구성되기 때문에 홑문장에서 볼 수 없는 여러 가지 통사적 현상이 일어나기도 한다. 가령 안은문장이나 이어진문장에서 두 절에 동일 요소가 있을 때 둘 중 하나가 생략되거나 다른 말로 바뀌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안은문장인 ‘나는 지나가는 친구를 큰 소리로 불렀다.’에서 관형사절인 ‘지나가는’의 주어가 지시하는 대상인 ‘친구’는 안은문장의 목적어가 지시하는 대상인 ‘친구’와 동일하기 때문에 생략되었다. 또 이어진문장인 ‘보람이는 중학교 교사이고 그녀의 언니는 고등학교 교사이다.’에서는 앞 절의 주어가 지시하는 대상이 뒤 절에서 ‘그녀’로 바뀌어 쓰였다.

㉠ 나는 유명인과 함께 찍은 사진을 친구들에게 자랑했다.  
 ㉡ 남편은 자기 지갑을 보았느냐고 아내에게 물었다.  
 ㉢ 이 금속은 아주 가볍지마는 쇠보다도 단단하다.  
 ㉣ 나는 휴식을 취하려고 이곳을 종종 찾아오고는 한다.  
 ㉤ 지하철에서 급하게 내리다가 거기에 우산을 두고 왔다.

- ① ㉠: 안긴절의 주어가 지시하는 대상이 안은문장의 주어가 지시하는 대상과 동일하기 때문에 안긴절의 주어가 생략되었다.
- ② ㉡: 안긴절의 관형어가 지시하는 대상이 안은문장의 주어가 지시하는 대상과 동일하기 때문에 ‘자기’로 바뀌어 쓰였다.
- ③ ㉢: 앞뒤 절의 주어가 지시하는 대상이 동일하기 때문에 뒤 절의 주어가 생략되었다.
- ④ ㉣: 앞 절의 목적어가 지시하는 대상이 뒤 절에서 ‘이곳’으로 바뀌어 쓰였다.
- ⑤ ㉤: 앞 절의 부사어가 지시하는 대상이 뒤 절에서 ‘거기’로 바뀌어 쓰였다.

수능특강 238 4

㉠~㉣의 문장 성분과 문장 구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이곳의 기후는 벼농사를 짓기에 딱 유리하다.  
 ㉡ 바로 그 결정이 깔끔히 된 일을 그려친 것이다.  
 ㉢ 부지런한 그녀는 가구에 윤기가 흐르도록 거실을 청소했다.  
 ㉣ 그는 자기가 원래 소속된 집단으로 복귀하고 싶다고 친구에게 말했다.

- ① ㉠에는 주어가 생략된 안긴절이 있고, ㉣에는 필수적 부사어가 생략된 안긴절이 있다.
- ② ㉡에는 주어 기능을 하는 안긴절이 있고, ㉢에는 관형어 기능을 하는 안긴절이 있다.
- ③ ㉠과 ㉣에는 모두, 안긴절 속에 부사어가 있다.
- ④ ㉡과 ㉢에는 모두, 보어가 생략된 안긴절이 있다.
- ⑤ ㉡과 ㉣에는 모두, 목적어가 생략된 관형사절이 있다.



수능특강 76 4

<학습 활동>을 수행한 결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선생님: 종속적으로 연결된 이어진문장은 연결 어미가 지닌 각각의 특수한 의미 때문에 쓰임에 제약이 따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간적인 선후 관계나 수단, 방법을 나타내는 연결 어미 ‘-아서/-어서’로 이어진 문장의 경우, ‘-았-/-었-’이나 ‘-겠-’과 같은 선어말 어미와 결합할 수 없습니다. 또한 ‘주원이는 걸어서 학교에 다닌다.’처럼 앞 절의 주어와 뒤 절의 주어가 반드시 일치해야 하는 제약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유나 근거를 나타내는 연결 어미 ‘-아서/-어서’로 이어진 문장의 경우, ‘-았-/-었-’이나 ‘-겠-’과의 결합이 가능하고 앞 절과 뒤 절의 주어가 서로 달라도 문장이 성립합니다. 그리고 이때의 ‘-아서/-어서’는 ㉠에 쓰이는 ‘-아서/-어서’와 달리 뒤 절에 명령문이나 청유문이 올 수 없습니다. 그러면 앞 절과 뒤 절의 의미 관계와 ‘-아서/-어서’의 용법을 모두 고려하여, [자료]의 이어진문장을 ㉠과 ㉡으로 구분해 볼까요?

[자료]

- 옷을 벗어서 옷걸이에 걸어라.
- 음식이 너무 많아서 다 못 먹겠다.
- 나는 머리에 꽃을 달아서 장식했다.
- 이 길은 좁아서 큰 차가 못 지나간다.
- 하도 전화를 걸어서 이제는 내 목소리를 알아듣는다.

- ① ‘옷을 벗어서 옷걸이에 걸어라.’는 뒤 절에 명령문이 올 수 있는 것으로 보아, ㉠에 해당합니다.
- ② ‘음식이 너무 많아서 다 못 먹겠다.’는 앞 절의 주어와 뒤 절의 주어가 일치하는 것으로 보아, ㉠에 해당합니다.
- ③ ‘나는 머리에 꽃을 달아서 장식했다.’는 ‘달아서’ 대신 ‘달았어서’를 쓸 수 없는 것으로 보아, ㉠에 해당합니다.
- ④ ‘이 길은 좁아서 큰 차가 못 지나간다.’는 앞 절과 뒤 절의 주어가 달라도 문장이 성립하는 것으로 보아, ㉡에 해당합니다.
- ⑤ ‘하도 전화를 걸어서 이제는 내 목소리를 알아듣는다.’는 ‘걸어서’ 대신 ‘걸었어서’를 쓸 수 있는 것으로 보아, ㉡에 해당합니다.

수능완성 96 1

앞 절과 뒤 절의 의미 관계가 <보기>의 ㉠과 ㉡의 의미 관계와 가장 유사한 것은?

종속적으로 연결된 이어진문장에서는 앞 절이 뒤 절에 대해 ‘시간적으로 앞섬’, ‘배경 상황 설명’, ‘목적/의도’, ‘조건/가정’, ‘이유/원인’, ‘양보’, ‘동시 상황’ 등의 일정한 의미를 나타낸다. 예컨대 ‘-는데’는 앞 절이 뒤 절에 대해 배경 상황을 설명하는 의미임을 나타낸다.

예) ㉠어제 집에 가는데 ㉡아주 이상한 장면을 목격했어.

- ① 광화문 광장에 가 보니 사람이 아주 많이 모였더라.
- ② 앞으로 힘든 일이 있더라도 결코 용기를 잃지 마라.
- ③ 그 형이 그렇게 마음에 들거든 용감하게 고백해 봐.
- ④ 큰언니는 파티 때 입을 옷을 사려고 백화점에 갔다.
- ⑤ 성진이는 밤새 책을 읽느라고 잠을 한숨도 못 잤다.

수능완성 175 36

<보기>는 이어진문장의 특성 중 하나를 설명한 것이다. ㉠에 들어갈 말로 적절한 것은?

이어진문장에서 앞 절이 뒤 절의 안으로 이동하여도 문장이 성립하는 경우가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다.

|                              |   |                               |
|------------------------------|---|-------------------------------|
| 아이가 울자 엄마는 아이를 달랬다.          | ⇒ | 엄마는 아이가 울자 아이를 달랬다.           |
| 산은 아름답고 강은 깨끗했다.             | ⇒ | *강은 산은 아름답고 깨끗했다.             |
| 책을 빌리려고 철수는 도서관에 갔다.         | ⇒ | 철수는 책을 빌리려고 도서관에 갔다.          |
| 그 사건이 발생하자 사람들은 그를 의심했다.     | ⇒ | 사람들은 그 사건이 발하자 그를 의심했다.       |
| 나는 파란색을 좋아하지만 동생은 빨간색을 좋아한다. | ⇒ | *동생은 나는 파란색을 좋아하지만 빨간색을 좋아한다. |

\*는 비문법적 문장임.

위의 예들을 통해 (    ㉠    ) 문장은 앞 절이 뒤 절 안으로 이동할 수 있으나, 그렇지 않은 문장은 앞 절이 뒤 절 안으로 들어갈 수 없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 ① 앞 절과 뒤 절의 주어가 같은
- ② 앞 절과 뒤 절의 주어가 다른
- ③ 앞 절과 뒤 절이 대등하게 이어져 있는
- ④ 앞 절과 뒤 절이 종속적으로 이어져 있는
- ⑤ 앞 절의 서술어와 뒤 절의 서술어가 자릿수가 같은

수능특강 72 5

<보기>의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문장 종결 표현이란 화자가?자신의 생각이나 느낌을 표현하기 위해 사용하는 특정의 문장 형식을 가리키는 문법 범주로, 문장의 유형이라고도 한다. 국어 문장의 유형은 종결 어미 혹은 문장 끝의 억양에 따라 평서문, 의문문, 명령문, 청유문, 감탄문의 다섯 종류로 나누는 것이 일반적이다.

언니: ㉠우리 같이 피자 먹자.

동생: ㉡앗, 언니도 배고팠던 줄을 내가 몰랐구나. ㉢(내리는 억양으로) 나는 아까 라면 먹었어.

언니: ㉣(올리는 억양으로) 너 라면 먹었어? ㉤너는 뭐 먹을 때 나 좀 불러라.

동생: ㉥앞으로는 꼭 그렇게

- ① ㉠은 종결 어미 '-자'가 쓰여 청자에게 행동을 함께할 것을 요청하고 있군.
- ② ㉡은 종결 어미 '-어'가 쓰여 상대방이 한 말을 되풀이해서 물어보고 있군.
- ③ ㉢은 종결 어미 '-ㄹ게'가 쓰여 행동을 약속하는 의미를 전달하고 있군.
- ④ ㉣과 ㉤은, 사용된 종결 어미의 형태는 서로 다르지만 둘 다 감탄문에 해당하겠군.
- ⑤ ㉣과 ㉤은, 사용된 종결 어미의 형태는 같으나 문장 끝의 억양에 따라 종결 표현이 구별되겠군.

수능특강 73 6

<보기>의 ㉠의 사례로 적절한 것은?

의문을 나타내는 대명사 ‘누구’, ‘언제’, ‘어디’, ‘무엇’ 등을 사용한 의문문은 그 대명사가 가리키는 부분에 대해 그 내용을 설명해 주기를 요구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예를 들어, 친구의 생일 날짜를 물으면서 “너는 생일이 언제야?”라고 한다면 이는 설명 의문문에 해당한다. 그런데 때에 따라서는 이러한 대명사가 ㉠화자의 질문에 대해 그렇거나 그렇지 않다는 대답을 요구하는 의문문에 쓰이기도 하고, 말하는 사람의 특정 감정을 드러내는 기능을 수행하기도 한다. 가령 말다툼 중에 꼬투리를 잡아 공격하는 상대방에게 “내가 언제 그랬어?”라고 하는 경우는 구체적인 답변을 요구한다기보다는 불쾌한 감정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 ① 이모: 커서 무엇이 되고 싶니?  
조카: 저는 과학자가 되고 싶어요.
- ② 행인 1: 여기서 누구 기다리세요?  
행인 2: 아니요, 그냥 쉬고 있어요.
- ③ 아내: 이 빵 맛있다. 어디에서 샀어?  
남편: 응. 저기 새로 생긴 빵집에서 샀어.
- ④ 후배: 저기 서 계시는 선생님이 누구세요?  
선배: 저분이 새로 오신 국어 선생님이셔.
- ⑤ 교사: 여기가 어디라고 소란을 피우는 거니?  
학생: 죄송합니다. 교무실에서는 조용히 할게요.

수능특강 83 1

<보기>의 ㉠, ㉡에 해당하는 예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발화의 유형

(1) ㉠직접 발화: 문장 종결 표현의 유형과 화자의 의도가 일치하는 발화  
예) (방 청소를 할 것을 요구하려는 의도로) 제발 방 청소 좀 해라.

(2) ㉡간접 발화: 문장 종결 표현의 유형과 화자의 의도가 일치하지 않는 발화  
예) (열려 있는 문을 닫아 주기를 부탁하려는 의도) 문으로 바람이 들어와 추워.

- ① ㉠: (함께 하교할 것을 부탁하려는 의도로) 학교 마치고 우리 같이 가자.
- ② ㉠: (방에서 나와 식사할 것을 요구하려는 의도로) 이제 나와서 밥 먹어라
- ③ ㉠: (길을 막은 사람에게 비켜 줄 것을 요구하려는 의도로) 먼저 가겠습니다.
- ④ ㉡: (난방기를 켜 줄 것을 요구하려는 의도로) 추워서 온몸이 으스스 떨리네.
- ⑤ ㉡: (요리 재료를 사 올 것을 부탁하려는 의도로) 지금 가게 문 열었겠지?

수능완성 176 39

<보기>의 ㉠~㉣에 해당하는 예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청유문은 일반적으로 ㉠화자가 청자에게 어떤 행동을 함께하기를 요청하는 문장이다. 그런데 청유형 어미가 쓰인 문장이 ㉡서술어가 나타내는 행동을 화자가 할 수 있도록 요청하거나 ㉢서술어가 나타내는 행동을 청자가 하도록 요청할 때 쓰이기도 한다.

- ① ㉠ A: 우리 영화 보러 가자.  
B: 뭐 재미있는 영화 개봉했어?
- ② ㉡ A: (버스에서 문 앞 사람에게) 좀 내립시다.  
B: (몸을 비키며) 잠시만요.
- ③ ㉢ A: (신문을 찾으며) 오늘 신문 좀 보자.  
B: (신문을 건네며) 다 보시고 저 좀 도와주세요.
- ④ ㉣ A: (기차에서 전화하는 사람에게) 조용히 합시다.  
B: (일어나며) 미안해요. 나가서 받을게요.
- ⑤ ㉣ A: 너의 취업 계획 좀 들어 보자.  
B: 저는 취업보다는 창업을 하고 싶어요.

수능특강 32 3

(1)~(3)에서 <보기>의 ㉠~㉥에 해당하는 표현의 실현 유무를 표시하십시오.

- 주체 높임 실현 방법
  - ㉠ 선어말 어미에 의해 실현
  - ㉡ 주격 조사에 의해 실현
  - ㉢ 주체를 높이는 용언에 의해 실현
- 객체 높임 실현 방법
  - ㉣ 부사격 조사에 의해 실현
  - ㉤ 객체를 높이는 용언에 의해 실현

|                                 | ㉠ | ㉡ | ㉢ | ㉣ | ㉤ |
|---------------------------------|---|---|---|---|---|
| (1) 선생님께서는 지금 강당에 계신다.          | x |   |   |   |   |
| (2) 언니는 외국에서 사 온 선물을 할아버지께 드렸다. |   |   |   |   |   |
| (3) 어머니는 할머니를 모시고 시골에 가셨다.      | o |   |   |   |   |

수능특강 81 5

<보기 1>을 참고하여 <보기 2>의 ㉠~㉥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국어의 높임 체계는 크게 문장에 등장하는 주체나 객체 등의 인물을 높이는 방법과 대화에서의 청자를 높이는 방법으로 나눌 수 있다. 주어의 지시 대상인 주체를 높이는 방법을 주체 높임이라고 하며 이는 주격 조사 ‘께서’와 주체 높임의 선어말 어미 ‘-(으)시-’를 통해 표현된다. 목적어나 부사어가 지시하는 대상을 높이는 방법을 객체 높임이라고 하며, 부사격 조사 ‘께’를 통해 표현된다. 주체 높임과 객체 높임 모두 특수 어휘에 의해서 표현되기도 한다. 청자를 높이는 방법을 상대 높임이라 하고, 주로 종결 어미에 의해 표현되며 보조사가 쓰이기도 한다.

(성준이 출장을 간 직장 선배인 예원에게 전화를 건 상황)

성준: 선배님, 혹시 이메일 보셨습니까?.....㉠

예원: 봤어요. 부장님께서 걱정이 많으시겠네요.....㉡

성준: 부장님께서 내일 원격 회의 참석 여부를 선배님께도 확인하라고 하셨습니다.....㉢

예원: 제가 팀장님을 모시고 온지라, 지금 확답을 드리기는 어렵네요.....㉣

성준: 그러면 우선 팀장님께 여쭙고, 저에게 바로 전화 주십시오.....㉤

- ① ㉠: 선어말 어미 ‘-시-’와 종결 어미 ‘-습니까’는 같은 인물을 높이기 위해 쓰였다.
- ② ㉡: 조사 ‘께서’와 보조사 ‘요’는 서로 다른 인물을 높이기 위해 쓰였다.
- ③ ㉢: 조사 ‘께’와 종결 어미 ‘-습니다’는 같은 인물을 높이기 위해 쓰였다.
- ④ ㉣: 동사 ‘모시고’와 동사 ‘드리기’는 서로 다른 인물을 높이기 위해 쓰였다.
- ⑤ ㉤: 동사 ‘여쭙고’와 종결 어미 ‘-십시오’는 같은 인물을 높이기 위해 쓰였다.

수능완성 97 3

<보기>는 종결 표현을 학습하는 수업의 한 장면이다. [A]에 들어갈 말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선생님: 종결 표현은 대체로 종결 어미에 의해 결정되는데, 이때 상대 높임의 등급까지 함께 결정돼요. 문장의 종결 표현과 상대 높임의 여섯 등급을 결정하는 종결 어미들은 다음 표의 각 빈칸에 자기 자리가 있어요. 어느 자리에 어떤 종결 어미가 위치하는지는 외우는 것이 아니고 한국인으로서 우리말에 대한 직관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에요. 그럼 ‘읽다’의 어간에 적절한 종결 어미를 붙여 ㉠~㉤에 들어갈 활용형을 말해 볼까요?

|      |       | 평서문 | 의문문 | 명령문 | 청유문 | 감탄문 |
|------|-------|-----|-----|-----|-----|-----|
| 격식체  | 하십시오체 | ㉠   |     |     |     |     |
|      | 하오체   |     |     | ㉡   |     |     |
|      | 하계체   |     |     |     | ㉢   |     |
|      | 해라체   |     |     |     |     | ㉣   |
| 비격식체 | 해요체   |     |     |     |     |     |
|      | 해체    |     | ㉤   |     |     |     |

학생: 네, 선생님. ( [A] )가 들어갑니다.

- ① ㉠에는 ‘읽습니다’
- ② ㉡에는 ‘읽는구려’
- ③ ㉢에는 ‘읽으세’
- ④ ㉣에는 ‘읽는구나’
- ⑤ ㉤에는 ‘읽어’

수능특강 75 3

<보기>의 ㉠, ㉡에 해당하는 예끼리 묶인 것으로 적절한 것은?

현재 시제의 관형사형 어미에는 ‘-는’과 ‘-(으)ㄴ’이 있는데, ‘-는’은 동사에 쓰이고 ‘-(으)ㄴ’은 형용사나 ‘이다’에 쓰인다. 과거 시제의 관형사형 어미에는 ‘-(으)ㄴ’과 ‘-던’의 두 가지가 있는데, 동사에는 이 두 가지가 다 쓰이고 형용사에는 ‘-던’만이 쓰인다. 다만 동작상을 보면, ㉠완료된 행위를 나타내는 경우에는 ‘내가 먹은 냉면은 유명한 식당에서 사 온 것이다.’와 같이 ‘-(으)ㄴ’이 붙고, ㉡미완료된 행위를 나타내는 경우에는 ‘그건 내가 먹던 냉면이다.’와 같이 ‘-던’이 붙는다. 형용사는 행위를 나타내지 않으므로, ‘-던’이 붙어도 단순히 과거를 나타내고 미완료된 행위를 나타내지 않는다.

- ① ㉠: 청바지를 입은 남자가 내 앞을 지나갔다.  
㉡: 바람이 불어 예쁘던 꽃들이 죄다 떨어졌다.
- ② ㉠: 눈이 쌓인 도로에서 꼼짝도 못 하고 있다.  
㉡: 집에서 책을 읽던 중에 형의 전화가 걸려 왔다.
- ③ ㉠: 나는 훌륭한 선생님 밑에서 서예를 배웠다.  
㉡: 선생님께서는 내 상담 요청에 하시던 일을 멈추셨다.
- ④ ㉠: 그는 손등에 수액 바늘을 꽂은 채로 밖으로 나갔다.  
㉡: 깨끗하던 계곡물에 맨발을 담그고 재미나게 놀았었다.
- ⑤ ㉠: 누나는 한참 만에 무거운 음성으로 말을 하기 시작했다.  
㉡: 우리를 앞질러 달리던 말들도 시냇가에서 목을 축이고 있었다.

수능특강 79 1

<보기>의 ㉠~㉣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윤찬: 할머니, 안녕하세요?  
 할머니: 아침에 까치가 ㉠울더니 반가운 손님이 찾아왔구나. ㉡울 때 힘들지는 않았니?  
 윤찬: 멀미를 좀 했는데, 벚꽃이 활짝 핀 걸 보니 기분이 ㉢좋아졌어요.  
 할머니: 작년만 해도 이렇게 키가 크지 ㉣않았었는데, 정말 많이 컸구나.  
 엄마: 내년에 초등학교 ㉤입학한다고 요즘 얼마나 잘 먹는지 몰라요.

- ① ㉠을 보니, 선어말 어미 ‘-더-’가 화자가 과거 어느 때의 일을 떠올리며 말할 때 쓰이고 있군.
- ② ㉡을 보니, 관형사형 어미 ‘-ㄹ’이 붙을 때 미래의 사건을 나타내지 않는 경우도 있군.
- ③ ㉢을 보니, 선어말 어미 ‘-였-’이 동사가 나타내는 동작이 이미 완료되었음을 나타낼 때 쓰이고 있군.
- ④ ㉣을 보니, 선어말 어미 ‘-았었-’이 현재와 비교하여 다른 과거의 상태를 나타낼 때 쓰이고 있군.
- ⑤ ㉤을 보니, 현재 시제 선어말 어미 ‘-ㄴ-’이 미래의 사건을 나타낼 때도 쓰이고 있군.

수능특강 79 2

<보기>의 ㉠~㉣의 예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선어말 어미 ‘-겠-’은 화자의 주관적인 태도를 나타내는 데 쓰이기도 한다. 예컨대 ‘아기가 귀엽겠다.’에는 아기가 귀여울 것 같다는 화자의 추측을 표현하는 의미가 있다. 이처럼 ㉠ ‘-겠-’은 화자가 가지고 있는 정보가 확실하지 않다는 추측의 의미를 표현할 수 있다. 또한 ‘-겠-’은 ‘나는 시인이 되겠다.’와 같이 화자가 미래에 하고자 하는 행위에 대한 의향이나 의지를 표현하기도 한다. ‘-겠-’이 추측을 나타낼 때는 여러 시제에 사용될 수 있고 주어에 대한 제약도 없다. 그러나 ㉡ 의향이나 의지를 나타낼 때는 과거 시제 형식과 결합할 수 없고, 평서문에서는 1인칭 주어만을 취할 수 있다. ㉢이 경우, 의문문에서는 2인칭 주어만이 ‘-겠-’과 함께 쓰인다. 문어체에서 예스러운 표현에 주로 쓰이는 선어말 어미 ‘-(으)리-’가 나타내는 화자의 주관적인 태도와 그 용법도 ‘-겠-’과 유사하다. ㉣ ‘-(으)리-’는 어떤 상황에 대한 화자의 추측을 나타내기도 하고, ㉤ 화자가 어떤 일을 할 의향이나 의지가 있음을 나타내기도 한다.

- ① ㉠: 지금쯤 강릉에는 함박눈이 오겠다.
- ② ㉡: 나는 커서 반드시 화목한 가정을 꾸리겠다.
- ③ ㉢: 서영아, 네가 우리 반 대표로 학생회에 참석해 주겠니?
- ④ ㉣: 그가 오랜 유학 생활을 마치고 이번 달에는 국내로 들어오리라.
- ⑤ ㉤: 나는 그녀가 재능이 풍부해서 꼭 작가로 성공하리라고 확신했다.

수능특강 102 4

<보기>를 참고하여 <자료>를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선어말 어미 ‘-ㄴ-’은 현재가 아니라 가까운 미래, 습관적인 행동이나 일정하게 반복되는 일, 직업 등을 나타내는 데에 사용되기도 한다. 선어말 어미 ‘-겠-’은 미래가 아니라 의지나 추측의 의미를 나타내는 데 쓰이기도 한다.

- (가) 우리는 내년에 선거를 치른다.
- (나) 매년 이맘때 벚꽃이 만개한다.
- (다) 그 사람은 음식점을 운영한다.
- (라) 지금부터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 (마) 날씨가 맑아서 소풍이 즐거웠겠어요.

- ① (가)에서 앞으로 일어날 일을 나타내는 데에 선어말 어미 ‘-ㄴ-’이 사용되었다.
- ② (나)에서 일정하게 반복되는 일을 나타내는 데에 선어말 어미 ‘-ㄴ-’이 사용되었다.
- ③ (다)에서 직업을 나타내는 데에 선어말 어미 ‘-ㄴ-’이 사용되었다.
- ④ (라)에서 화자의 의지를 드러내는 데에 선어말 어미 ‘-겠-’이 사용되었다.
- ⑤ (마)에서 앞으로 일어날 일을 추측하는 데에 선어말 어미 ‘-겠-’이 사용되었다.

수능특강 225 3

<보기>의 자료를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선어말 어미 ‘-겠-’의 문법적 의미 탐구를 위한 자료

ㄱ. 내일은 날씨가 좋겠다.  
 ㄴ. 어제 영화는 기차를 탔겠다.  
 ㄷ. 지금쯤 제주에도 비가 오겠지?  
 ㄹ. 나는 커서 훌륭한 사람이 되겠다.  
 ㅁ. 나는 {내일, \*어제} 저녁 모임에 꼭 참석하겠다.  
 ㅂ. 오늘 저녁 모임에 {\*내가, \*그가, 네가} 꼭 참석해 주겠니?

(\*는 문법에 맞지 않음을 나타냄.)

- ① ㄱ~ㄷ에서 ‘-겠-’은 추측을 나타낸다.
- ② ㄱ~ㄷ으로 볼 때, ‘-겠-’은 과거, 현재, 미래의 상황 모두에 사용될 수 있다.
- ③ ㄷ과 ㅂ으로 볼 때, ‘-겠-’은 의문문에서 추측이나 의도 외에 진행의 뜻을 포함한다.
- ④ ㄹ과 ㅁ으로 볼 때, ‘-겠-’이 의지나 의도를 나타낼 때는 과거 시제와 어울려 쓰일 수 없다.
- ⑤ ㅂ으로 볼 때, 의문문에서 ‘-겠-’이 의지나 의도를 나타낼 때는 주어의 인칭에 제한이 있다.



수능완성 203 37

<보기>의 설명에 따라 ㉠~㉤의 밑줄 친 부분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았/었-’은 사건시가 발화시보다 앞서 있음을 나타내는 과거 시제 형태소이고, ‘-ㄴ/는-’은 사건시가 발화시와 일치함을 나타내는 현재 시제 형태소이다. 그런데 간혹 시제 형태소가 다른 시간을 나타내거나 동작상을 나타내는 경우가 있다.

㉠ 저 나무 위의 감이 참 잘 익었구나.  
 ㉡ 커피를 많이 마셨으니 오늘 잠은 다 잤다.  
 ㉢ 인간은 언제나 때가 되면 반드시 죽는다.  
 ㉣ 드디어 내일 그 가수의 콘서트를 보러 간다.  
 ㉤ 나는 매일 하루를 돌아보기 위해 일기를 쓴다.

- ① ㉠: 과거 사건의 결과 상태가 현재까지 지속됨을 나타낸다.
- ② ㉡: 미래의 사건을 확정적인 사실로 받아들임을 나타낸다.
- ③ ㉢: 어떠한 시간에도 성립하는 보편적 진리임을 나타낸다.
- ④ ㉣: 머지않은 미래에 일어날 일임을 나타낸다.
- ⑤ ㉤: 특정한 시간에 사건이 일어날 예정임을 나타낸다.

수능특강 80 3

<보기>의 ㉠, ㉡에 해당하는 예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는 나에게 진실을 숨겼다.’에서 ‘진실을 감추다’라는 의미를 유지하면서 ‘진실이 숨다.’를 상정할 수 없는 것과 같이, 주로 비유적 어휘나 관용구를 포함한 문장 중에는 사동사의 형태를 띠지만 사동의 의미에서 다소 떨어져 ㉠사동문에 대응하는 주동문을 상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 사동사에 의한 사동문에서 이러한 현상이 빚어지는 것은 사동 접미사가 파생 접미사로서 어근과는 다른 새로운 단어를 파생하기 때문이다. 이는 피동사에 의한 피동문에서도 마찬가지인데, 능동사와 피동사는 서로 다른 단어인 만큼 능동과 피동의 관계 역시 일대일로 대응하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피동문에 대응하는 능동문을 상정하기 어려운 경우나, 피동문으로 만들 수 없는 능동문이 존재한다.

- ① ㉠: 구름이 걸힌 하늘에 햇살이 비치기 시작했다.
- ② ㉠: 우리는 방을 도배하려고 가구들을 밖으로 옮겼다.
- ③ ㉠: 그는 밖에서 벌어들이는 돈을 잘 꼴리는 사람이다.
- ④ ㉡: 벌써 경첩이 가까운데 날씨가 풀릴 기미도 없다.
- ⑤ ㉡: 너는 감기에 걸리지 않도록 따뜻하게 좀 입고 다녀라.

수능특강 99 4

<보기>의 ㄱ~ㄴ을 탐구한 결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ㄱ. 의사가 심정지 환자를 응급실로 옮겼다.  
 ㄴ. 어머니가 아이에게 젖을 물렸다.  
 ㄷ. 창문이 바람에 달렸다.  
 ㄹ. 인터넷 연결이 끊겼다.

- ① ㄱ은 주동문으로 바꿀 수 없다.
- ② ㄴ은 주동문으로 바꾸면 서술어의 자릿수가 줄어든다.
- ③ ㄴ은 용언 어간에 ‘-게 하다’가 결합된 사동문으로 바꿀 수 있다.
- ④ ㄷ과 달리, ㄹ은 용언 어간에 ‘-어지다’가 결합된 피동문으로 바꿀 수 없다.
- ⑤ ㄱ과 ㄹ의 서술어에는 동일한 형태의 접사가 결합되어 있지만, 각 접사의 문법적 기능은 서로 다르다.

수능완성 175 37,38

1~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동사는 목적어를 필요로 하느냐에 따라 자동사와 타동사로 구분된다. 자동사는 ‘눅다’와 같이 움직임이 주어에만 미치는 동사로 목적어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이에 비해 타동사는 움직임이 주어 이외에 목적어에도 미쳐 주어는 물론 목적어를 반드시 필요로 한다. 그런데 하나의 동사가 동일한 의미로 자동사와 타동사 모두로 쓰이는 경우도 있다. 가령 ‘그치다’는 ‘울음소리가 그치다.’에서는 자동사로 쓰인 반면, ‘아이가 울음을 그치다.’에서는 타동사로 쓰인다.

동사의 분류는 행동의 자발성 여부에 따라 이루어지기도 한다. 주어가 자발적으로 움직임을 하는 의미를 나타내는 동사를 능동사라고 하고, 주어로 나타난 대상이 남에게 움직임을 당하는 의미를 나타내는 동사를 피동사라고 한다. 예를 들어, ‘경찰이 도둑을 잡다.’에서 ‘잡다’는 주어인 ‘경찰이’의 자발적인 움직임을 나타내는 능동사이다. 이에 비해 ‘도둑이 경찰에게 잡히다.’에서 ‘잡히다’는 주어인 ‘도둑이’의 자발적인 움직임이 아닌 ‘경찰에게’ 잡힘을 당한 의미를 나타내므로 피동사이다. 능동사 ‘잡다’는 목적어를 필요로 하는 타동사인 반면, 피동사 ‘잡히다’는 목적어가 필요 없는 자동사이다.

동사를 ‘아이가 밥을 먹다.’에서 ‘먹다’처럼 주체가 직접 행동하는 의미를 나타내는 주동사와 ‘엄마가 아이에게 밥을 먹이다.’의 ‘먹이다’와 같이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어떤 행동을 하게 하는 의미를 나타내는 사동사로 구분하기도 한다. 주동사는 자동사인 경우도 있고, 타동사인 경우도 있으나 사동사는 모두 타동사이다.

피동사와 사동사는 능동사와 주동사에 피동 접미사와 사동 접미사가 붙어 만들어진다. 능동사 ‘잡다’에 피동 접미사 ‘-히-’가 붙어 피동사 ‘잡히다’가 되고, 주동사 ‘먹다’에 사동 접미사 ‘-이-’가 붙어 사동사 ‘먹이다’가 형성되는 것이다.

㉠한편 다의어나 동음이의어는 각각의 의미에 대한 사동사나 피동사의 형태가 같은 경우가 있어 이를 잘 구별해야 한다. 예를 들어 ‘머리를 감기다.’에서 ‘감기다’는 ‘머리를 물로 씻다.’라는 의미를 갖는 ‘감다’의 사동사인 반면, ‘줄이 잘 감기다.’에서 ‘감기다’는 ‘물체가 다른 물체에 말리거나 빙 돌리다.’의 의미를 갖는 ‘감다’의 피동사이다.

1. 윗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손에 입김을 불었다.’에서의 ‘불다’는 타동사인 반면, ‘바람이 분다.’에서의 ‘불다’는 자동사이다.
- ② ‘편이 돌로 갈렸다.’에서의 피동사 ‘갈리다’에 대응되는 능동사는 자동사이다.
- ③ ‘동생에게 시계를 보였다.’에서의 사동사 ‘보이다’에 대응되는 주동사는 타동사이다.
- ④ ‘막차가 끊겼다.’에서의 ‘끊기다’는 타동사 ‘끊다’에 피동 접미사가 결합해 자동사로 쓰인 것이다.
- ⑤ ‘낙엽을 불에 태웠다.’에서의 ‘태우다’는 자동사 ‘타다’에 사동 접미사가 결합해 타동사로 쓰인 것이다.

2. ㉠을 바탕으로 <보기>의 ㉡~㉤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다**

「1」 눈으로 대상의 존재나 형태적 특징을 알다.  
 「2」 대상의 내용이나 상태를 알기 위하여 살피다.  
 「3」 어떤 결과나 관계를 맥지에 이르다.

㉡ 아이는 친구에게 새 장난감을 **보이며** 자랑했다.  
 ㉢ 멀리 건물 사이로 **보이는** 하늘이 아름답다.  
 ㉣ 회의가 길어지자 사장은 피곤하다는 눈치를 **보였다**.  
 ㉤ 반격의 기회가 **보이자**, 대포가 먼저 발사되었다.  
 ㉥ 주인공의 이별로 인해 이야기의 결말이 **보인다**.

- ① ㉡는 보다 「1」의 사동사가 쓰인 예이다.
- ② ㉢는 보다 「1」의 피동사가 쓰인 예이다.
- ③ ㉣는 보다 「2」의 사동사가 쓰인 예이다.
- ④ ㉤는 보다 「2」의 피동사가 쓰인 예이다.
- ⑤ ㉥는 보다 「3」의 사동사가 쓰인 예이다.

수능완성 257 35

밑줄 친 부분에서 <보기>의 ㉠, ㉡을 모두 확인할 수 있는 것은?

피동은 피동사나 ‘-어지다’를 통해 표현된다. 또 ‘명사+-하다’ 형식의 능동사는 ‘명사+-하다’ 형식의 피동사가 되기도 한다. 그런데 이러한 피동의 형식들 중 둘 이상이 함께 쓰이는 경우가 있다. 이는 ㉠피동 형식의 불필요한 중복이므로 바람직하지 않다. 한편, 사동은 사동사나 ‘-게 하-시키다’ 형식의 사동사가 되기도 한다. 그런데 ‘명사+-하다’ 형식의 주동사를 써야 할 곳에 ‘명사+-시키다’ 형식의 사동사를 쓰는 경우가 있다. 이는 ㉡사동 형식의 잘못된 사용이므로 바람직하지 않다.

- ① 현주가 나한테 소개시켜 준 친구는 이번 학년도에 나하고 같은 반에 배치되었다.
- ② 어머니께서 편찮으시니 빨리 입원시켜 드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 ③ 준수가 그 약하던 몸을 이 정도까지 단련시켰다고 하니 도무지 믿겨지지 않는다.
- ④ 그에게 탁구 칠 때의 바른 자세를 오래 연습시켰는데도 그의 자세는 고쳐지지 않았다.
- ⑤ 이 선을 저 선에 연결시키고 나서 시동을 다시 걸어 보시면, 잘 수리되었음을 아실 겁니다.

수능특강 80 4

<보기>의 ㉠과 ㉡에 모두 해당하는 문장으로 적절한 것은?

‘짧은 부정’은 부정 부사 ‘안’이나 ‘못’으로 부정문을 만든 것이고 ㉠‘긴 부정’은 ‘-지 않다’나 ‘-지 못하다’와 같이 부정 보조 용언 구성으로 부정문을 만든 것이다. 흔히 ‘안’이나 ‘-지 않다’를 사용한 ‘안’ 부정은 의지 부정을, ‘못’이나 ‘-지 못하다’를 사용한 ‘못’ 부정은 능력 부정을 나타낸다고 한다. 그러나 ‘안’ 부정이 모두 의지 부정인 것은 아니다. ‘여기에는 별이 안 든다.’에서 보듯이 어떤 객관적 상황에 대한 부정은 주체의 의지 등과 무관하며 이를 ㉡단순 부정 또는 중립 부정이라고 한다.

- ① 우리 언니는 키가 안 작다.
- ② 한여름인데 요즘은 날씨가 별로 덥지 않다.
- ③ 금구에서 전주까지는 사십 리가 좀 안 되었다.
- ④ 아내가 있는 부엌에서는 아무 소리도 안 들렸다.
- ⑤ 나는 배가 고팠는데도 밥을 먹지 않고 버티었다.

수능특강 106 4

<보기>의 ㉠~㉣에 해당하는 예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일반적으로 ‘안’ 부정은 의지 부정, ‘못’ 부정은 ‘능력 부정’으로 알려져 있으나 ‘안’ 부정이 모두 의지 부정인 것이 아니듯이 ‘못’ 부정이 꼭 능력 부정으로만 쓰이는 것은 아니다. 보조 용언 ‘못하다’가 동사로 된 본용언 뒤에 쓰이면 ㉠앞말이 뜻하는 행동에 대하여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그것을 이를 능력이 없음을 나타내지만, ㉡‘금지’의 의미를 나타내거나 ㉢‘거부’의 의미를 나타내기도 한다. 그리고 형용사로 된 본용언 뒤에 쓰여 ㉣앞말이 뜻하는 상태에 미치지 아니함을 나타내기도 한다. 또한 일종의 관용적 용법으로, ‘못하다’가 용언 뒤에 쓰여 ㉣앞말이 뜻하는 행동이나 상태가 극에 달해 그것을 더 이상 유지할 수 없음을 나타내기도 한다.

- ① ㉠: 그는 흐르는 눈물 때문에 말을 더 잇지 못했다.
- ② ㉡: 총기, 도검 등 무기류는 일절 수입하지 못합니다.
- ③ ㉢: 별로 편안하지 못한 마음으로 여행을 떠나게 되었다.
- ④ ㉣: 엄마는 불손한 태도는 옳지 못하다고 아이를 야단쳤다.
- ⑤ ㉣: 하루 종일 굶었더니 배가 고프다 못하여 아플 지경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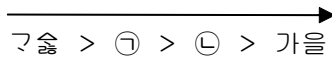
수능특강 90 3

<보기>의 ㉠, ㉡에 들어갈 수 있는 표기로 가장 적절한 것은?

선생님: 국어의 변화는 문헌 자료를 통해서 추론해 볼 수 있어요. 예를 들어, 15세기 문헌에서는 ‘ㅅ’을 가지고 있던 단어가 16세기 문헌에서는 ‘ㅅ’이 사라진 채 표기되기 시작합니다. 이를 통해서 음운 체계에서 ‘ㅅ’이 사라졌음을 추론할 수 있어요. 다른 사례도 살펴보면, 16세기에 들어서 단어의 첫음절이 아닌 곳에 있는 ‘·’가 ‘ㅡ’로 나타납니다. 18세기 자료로 가면 첫음절의 ‘·’도 ‘ㅏ’로 바뀌어서 나타납니다. ‘·’가 소실되어 가는 과정을 보여 주는 것이지요. 이렇게 표기의 변화를 통해 음운 변화가 일어났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음운 변화가 표기에 즉시 반영되는 건 아니에요. 문자는 보수적인 속성이 있어서 음운 변화가 일어나더라도 이전의 표기가 쓰이는 경우가 많지요. 하지만 오늘은 ‘ㅅ’이 ‘·’보다 먼저 소실되었고, 이것이 표기에 곧바로 반영이 됐다고 가정을 해 봅시다. 그리고 ‘ㄱ술’에서 만약 ‘ㅎ’이 가장 먼저 소실되었다면, 이후에 시간의 흐름에 따라 이 단어가 어떠한 표기로 나타났을지 예측해 봅시다.

시간의 흐름



- |   |    |    |
|---|----|----|
|   | ㉠  | ㉡  |
| ① | ㄱ을 | ㄱ을 |
| ② | ㄱ울 | 가을 |
| ③ | ㄱ을 | 가을 |
| ④ | ㄱ술 | ㄱ을 |
| ⑤ | ㄱ술 | 가을 |

수능특강 99 5

<보기>의 ‘선생님’의 질문에 대한 답을 바르게 짝지은 것은?

선생님: 국어의 변천 과정 중 모음 ‘·’는 중세 국어와 근대 국어 시기에 걸쳐 두 번의 변화를 겪었습니다. 우선 단어의 둘째 음절 이하에 놓인 모음 ‘·’가 ‘ㅡ’로 변화하였습니다. 이때에는 첫째 음절에 놓인 모음 ‘·’는 변화하지 않았지요. 그런데 이후에는 첫째 음절에 놓인 모음 ‘·’도 ‘ㅏ’로 변화하였습니다. 다음 제시된 단어들은 앞서 설명한 모음 ‘·’의 변화가 나타나 있는 예인데요, ㉠~㉣에 들어갈 단어의 형태를 유추해 볼까요?

- ㅅㅅㅏ > ㅅㅅㅏ > ㉠
- ㅎ물며 > ㉡ > 하물며 > 하물며
- ㄱㄹ치다 > ㄱㄹ치다 > ㉢

- |   |    |     |      |
|---|----|-----|------|
|   | ㉠  | ㉡   | ㉢    |
| ① | 사이 | ㅎ물며 | ㄱㄹ치다 |
| ② | 사이 | 하물며 | ㄱㄹ치다 |
| ③ | 사이 | ㅎ물며 | ㄱㄹ치다 |
| ④ | 스ㅏ | 하물며 | ㄱㄹ치다 |
| ⑤ | 스ㅏ | ㅎ물며 | ㄱㄹ치다 |

수능완성 204 39

<보기>는 우리말의 변화를 확인하기 위해 수집한 자료이다. ㉠~㉤에 대해 설명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 ㉠ 스△ > 사이
- ㉡ 플 > 풀
- ㉢ 아츰 > 아츰 > 아침
- ㉣ 브티다 > 부치다

- ① ㉠에서 받침음 ‘△’이 연구개음 ‘ㅇ’으로 바뀌었음을 알 수 있다.
- ② ㉡에서 원순 모음 ‘ㅡ’가 평순 모음 ‘ㅓ’로 바뀌었음을 알 수 있다.
- ③ ㉢에서 ‘ㅈ’ 뒤에서 고모음 ‘ㅛ’가 저모음 ‘ㅣ’로 바뀌었음을 알 수 있다.
- ④ ㉣에서 모음 ‘ㅣ’ 앞에서 ‘ㅌ’이 경구개음 ‘ㅈ’으로 바뀌었음을 알 수 있다.
- ⑤ ㉠, ㉢에서 ‘ㅛ’는 첫째 음절과 둘째 음절에서 모두 전설 모음으로 바뀌었음을 알 수 있다.

수능특강 92 5

<보기>를 읽고, ㉠~㉤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현대 국어와 마찬가지로 중세 국어에서도 격 조사로써 주어, 목적어, 관형어, 부사어 등의 문장 성분을 만들 수 있다. 중세 국어의 주격 조사는 ‘이, ㅣ, Ø’로 나타나고, 목적격 조사는 ‘을, 을, 를, 를, ㅁ’로 나타난다. 관형격 조사는 ‘의, 의, ㅅ’으로 나타나는데, ‘의, 의’는 모음 뒤에서는 ‘ㅣ’로 나타나 주격 조사와 형태가 같아지기도 한다. ‘ㅅ’은 현대 국어에 없는 조사이다. 부사격 조사로는 ‘애, 에, 예’, ‘으로, 으로, 로’, ‘와, 과’ 등이 다양하게 존재하여, 장소, 도구, 재료, 수단, 원인, 비교 등의 다양한 의미를 나타낸다. 이를 참고하여, 아래 중세 국어 자료의 ㉠~㉤에 쓰인 격 조사와 문장 성분을 분석해 보자.

㉠나랏 말쌈미 ㉡中동國력에 달아 文문字종와로 서르 스똥디 아니홀씩 이런 전초로 어린 백씩姓성이 니르고져 ㅎ ㉢배 이셔도 ㅁ츨내 제 ㉣쁘들 시러 퍼디 ㅁㅎ ㉤노미 하니라

**[현대어 풀이]**  
우리나라의 말이 중국과 달라 한자와는 서로 통하지 아니하여서 이런 까닭으로 어리석은 백성이 말하고 자 할 바가 있어도 마침내 제 뜻을 능히 펴지 못할 사람이 많다.

- ① ㉠은 관형격 조사가 결합하여 만들어진 관형어이다.
- ② ㉡은 부사격 조사가 결합하여 만들어진 부사어이다.
- ③ ㉢은 관형격 조사가 결합하여 만들어진 관형어이다.
- ④ ㉣은 목적격 조사가 결합하여 만들어진 목적어이다.
- ⑤ ㉤은 주격 조사가 결합하여 만들어진 주어이다.

수능특강 107 5

<보기>는 중세 국어의 모음 체계에 대한 수업의 일부이다. ㉠과 ㉡에 들어갈 말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학생: 선생님, 『훈민정음』 해례본의 내용에서 궁금한 점이 생겼어요. 이 부분은 이중 모음의 제자에 대한 설명인데, 그렇다면 중세 국어에서는 ‘ㅁ, ㅂ, ㄷ, ㅌ’가 이중 모음이었던 것인가요?

一字中聲之與 | 相合者 + 이니ㅁㅂㄷㅌㅍㅈㅊㅌ是也. - 『훈민정음』 해례 중성해 (한 글자로 된 중성이 ‘ㅣ’와 어울린 것은 10개로, ‘이니ㅁㅂㄷㅌㅍㅈㅊㅌ’이다.)

선생님: 좋은 질문이에요. 우선 ‘ㅁ+ㅣ → ㅁ’와 같이 글자를 만들었다는 중성해의 기술을 통해 ‘ㅁ’ 등이 단 모음과 반모음 ‘j’가 결합한 이중 모음이었다는 근거를 찾을 수 있습니다. 또 ‘ㅁ, ㅂ, ㄷ, ㅌ’로 끝나는 체언과 결합하는 중세 국어 조사의 형태를 통해서도 이들 모음이 이중 모음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어요. 현대 국어의 ‘이다’에 대응하는 중세 국어의 조사는 자음 뒤에서는 ‘이라’, ‘ㅣ’나 반모음 ‘j’ 이외의 모음 뒤에서는 ‘ㅣ라’, ‘ㅣ’나 반모음 ‘j’ 뒤에서는 ‘∅라’의 형태로 결합했습니다. 따라서 ‘불취라(뿌리이다)’를 통해 ‘ㅌ’가 반모음 ‘j’로 끝나는 이중 모음이었음을 알 수 있지요. 그리고 ‘스시예(사이에)’, ‘뒤예셔(뒤에서)’와 같이, 중세 국어에서 ‘ㅣ’나 반모음 ‘j’로 끝나는 체언 뒤에는 부사격 조사 ‘에’, ‘에서’가 ‘예’, ‘예셔’의 형태로 결합했습니다. 한편 중세 국어에서 ‘ㅣ’나 반모음 ‘j’로 끝나는 어간 뒤에 명사형 어미 ‘-음’이 결합하면 반모음 ‘j’가 첨가되는 현상이 있었는데, ‘가리움 득외요미(가림이 됨이)’의 ‘가리움’과 ‘득외요미’를 살펴보면 ‘가리-’와 ‘득외-’에 결합한 명사형 어미 ‘-음’에 반모음 ‘j’ 첨가가 일어났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득외-’의 ‘ㅌ’가 반모음 ‘j’로 끝나는 이중 모음이었음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학생: 그러면 ( ㉠ )을(를) 통해 ( ㉡ )가 반모음 ‘j’로 끝나는 이중 모음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겠네요.

선생님: 네, 맞아요.

- |  |   |
|--|---|
| ㉠                                      | ㉡ |
| ① ‘이 시내에 사느(이 시내에 사는)’의 ‘시내에’          | ㅂ |
| ② ‘저고맛 時節 디내움돌흔(조그만 시절을 지냄은)’의 ‘디내움’   | ㅂ |
| ③ ‘형데 사괴요물(형제와 사귀음)’의 ‘사괴음’            | ㅌ |
| ④ ‘金剛은 쇠에서 난(금강은 쇠에서 난)’의 ‘쇠에서’        | ㅌ |
| ⑤ ‘이 상해 사롬미 효되라(이 보통 사람의 효도이다)’의 ‘효되라’ | ㅌ |

수능완성 102 2

<보기>의 ㉠~㉣에 대해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중세 국어]

㉠世尊하 날 爲하야 ㉡니르쇼셔 부테 니르샤되 ㉢바르래 누분 ㉣이론 ㉤네 죽사릿 바르래 잇논 아이오 (『월인석보』 권 1)

[현대어 풀이]

세존(世尊)이시여 나를 위해 말씀하소서. 부처께서 말씀하시되 바다에 누운 일은 네가 생사(生死)의 바다에 있는 모습이고

- ① ㉠: 높임의 대상을 부르는 호격 조사 ‘하’가 쓰였다.
- ② ㉡: 청자를 높이는 어말 어미 ‘-쇼셔’가 쓰였다.
- ③ ㉢: 양성 모음 뒤에서 쓰이는 부사격 조사 ‘애’가 쓰였다.
- ④ ㉣: 용언 어간 뒤에 관형사형 어미 ‘-은’이 쓰였다.
- ⑤ ㉤: 대명사 ‘너’ 뒤에 주격 조사 ‘ㅣ’가 쓰였다.

수능특강 89 2

<보기>를 읽고, ㉠~㉣을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형태소를 분석하다 보면, 현대 국어에서 기능은 다르지만 형태는 같은 것들이 중세 국어에서는 기능에 따라 서로 다른 형태였던 사례를 발견할 수 있다. 반면에 중세 국어와 현대 국어에서 기능은 계속 같지만, 시간이 흐름에 따라 형태가 달라진 것들도 있다. 아래 자료에서 기능과 형태의 관계에 주목하여 중세 국어와 현대 국어의 형태소를 분석해 보자.

|           |                                 |
|-----------|---------------------------------|
| ㉠ [중세 국어] | <b>노피</b> 버개 베어                 |
| [현대어 풀이]  | <b>높이</b> 베개 베어                 |
| ㉡ [중세 국어] | <b>노퍽</b> 와 <b>너빅</b> 왜 漸漸 저거   |
| [현대어 풀이]  | <b>높이</b> 와 <b>너비</b> 가 점점 적어져  |
| ㉢ [중세 국어] | <b>거름</b> <b>거루미</b> 곧 𑖗𑖔시며     |
| [현대어 풀이]  | <b>걸음</b> 을 <b>걸음</b> 이 고니 같으시며 |

- ① ㉠에서 ‘노피’와 ‘높이’는 이어 적기 적용 여부에 따라 표기에 차이가 있지만 사용된 접사의 형태는 서로 같다.
- ② ㉠에서 ‘노피’의 접사와 ‘높이’의 접사는 모두 용언 어간인 어근에 결합한다는 공통점이 있다.
- ③ ㉡에서 ‘노퍽’과 ‘너빅’의 접사는 형태가 다르고, 서로 다른 품사의 단어를 만든다.
- ④ ㉢에서 현대 국어의 두 ‘-음’은 형태가 같지만 서로 다른 기능을 가지고 있다.
- ⑤ ㉢에서 현대 국어의 두 ‘-음’은 중세 국어에서는 서로 다른 형태로 나타난다.

수능특강 239 5

<보기>의 [선생님의 설명]을 참고하여 [중세 국어 자료]를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선생님의 설명]**  
 중세 국어의 높임 표현에는 현대 국어와 마찬가지로 어휘적 수단, 문법적 수단 등이 두루 사용되었습니다. 어휘적 수단은 동사 ‘술다’ 등을 쓰는 것이고, 문법적 수단은 ‘씩’, ‘하’ 등 조사를 쓰는 것과 ‘-(으)시-’, ‘-습-’, ‘-이-’ 등 선어말 어미를 쓰는 것입니다. 특히 중세 국어에서는 선어말 어미를 통해 객체 높임과 상대 높임을 나타낼 수 있었습니다. 객체 높임의 선어말 어미 ‘-습-’은 ‘녀삽고’에서처럼 ‘어간의 끝소리가 ‘ㅎ’일 때는 ‘ㅎ’과 ‘스’이 결합하여 ‘-삽-’으로 나타났으며,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서는 ‘-습-’ 대신에 ‘-술-’이 쓰였습니다. 또 상대 높임의 선어말 어미 ‘-이-’는 ‘-잇고’에서처럼 의문문에서는 ‘-잇-’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다음 중세 국어 자료에 나타난 높임 표현에 대해 파악해 볼까요?

**[중세 국어 자료]**  
 그저기 闍婆摩羅 | 座에서 니러 나아 **부터씩** **술보딛**  
**世尊**하 摩耶夫人이 엇던 功德을 **닷**𑖗𑖔시며 엇던 因緣으로 如来을 **나쓰북**시니잇고

**[현대어 풀이]**  
 그때에 달바마라가 자리에서 일어나 나가 부처께 아뢰되  
 “세존이시여 마야부인이 어떤 공덕을 닦으셨으며 어떤 인연으로 여래를 낳으셨습니까?”

- ① ‘부터씩’의 ‘씩’은 객체인 ‘부터’를 높이기 위해 쓰인 것이다.
- ② 동사 ‘술보딛’은 주체인 ‘달바마라’를 높이기 위해 쓰인 것이다.
- ③ ‘나 쓰북시니잇고’의 ‘-술-’은 객체인 ‘여래’를 높이기 위해 쓰인 것이다.
- ④ ‘世尊하’의 ‘하’와 ‘나쓰북시니잇고’의 ‘-잇고’는 모두 ‘세존’을 높이기 위해 쓰인 것이다.
- ⑤ ‘닷𑖗𑖔시며’의 ‘-으시-’와 ‘나쓰북시니잇고’의 ‘-으시-’는 모두 ‘마야부인’을 높이기 위해 쓰인 것이다.

수능특강 91 4

<보기>를 읽고, ㉠, ㉡에 알맞은 요소를 추론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의문문에는 ‘누구, 언제, 어디, 무엇, 왜, 어떻게, 얼마’ 등의 의문사가 있는 설명 의문문과 의문사가 없는 판정 의문문이 있다. 판정 의문문은 ‘예’ 또는 ‘아니요’로 대답할 수 있지만, 설명 의문문은 의문사에 대한 설명으로써 대답해야 한다. 중세 국어에서는 설명 의문문과 판정 의문문에 서로 다른 종결 어미가 사용되었다. 또한 중세 국어에서는 체언에 조사가 붙어 의문문을 만들 수 있었는데, 이는 현대 국어에서는 발견되지 않는 특징이다. 아래 예문에서 중세 국어의 의문문의 특징을 발견할 수 있다.

- 이제 어디 잇누뇨 (이제 어디 있느냐?)
- 버디 잇누녀 (벗이 있느냐?)
- 이 므슴 相고 (이것이 무슨 상이냐?)
- 이 썩리 너희 종가 (이 딸이 너희들의 종이냐?)

위 내용을 참조하여 아래의 가상의 중세 국어 문장을 적절하게 완성해 보자.

- 넛가새 므슴 고지 퍼 잇더(㉠) (넛가에 무슨 꽃이 피어 있더냐?)
- 이 고지 일후미 므스(㉡) (이 꽃의 이름이 무엇이냐?)

- ① ㉠에는 의문형 어미 ‘-뇨’, ㉡에는 의문 보조사 ‘가’가 적절하다.
- ② ㉠에는 의문형 어미 ‘-뇨’, ㉡에는 의문 보조사 ‘고’가 적절하다.
- ③ ㉠에는 의문형 어미 ‘-녀’, ㉡에는 의문 보조사 ‘고’가 적절하다.
- ④ ㉠에는 의문 보조사 ‘고’, ㉡에는 의문형 어미 ‘-뇨’가 적절하다.
- ⑤ ㉠에는 의문 보조사 ‘가’, ㉡에는 의문형 어미 ‘-녀’가 적절하다.

수능완성 257 36

<보기>의 설명을 바탕으로 할 때, 밑줄 친 부분이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중세 국어의 의문문에서는 인칭이나 의문문의 종류에 따라 의문 보조사나 의문형 어미의 형태가 다르게 쓰였다. 예를 들어 체언 다음에 오는 의문 보조사는 판정 의문문에서는 ‘가’가, 설명 의문문에서는 ‘고’가 쓰였다. 또 의문형 어미는 현대 국어의 해라체에 해당하는 문장에서 판정 의문문 어미로 ‘-녀’가, 설명 의문문 어미로 ‘-뇨’가 쓰였다. 한편 주어가 2인칭일 때에는 의문문의 종류에 상관없이 ‘-너다’가 쓰였다.

- ① 이는 賞(상)가 [이는 상인가?]
- ② 이 일후미 므스고 [이 이름이 무엇인가?]
- ③ 功德(공덕)이 하녀 [공덕이 많으냐?]
- ④ 네 엇데 아니 가누뇨 [네가 어찌 안 가는가?]
- ⑤ 그디는 보디 아니호는다 [그대는 보지 않는가?]



수능특강 88 1

<보기>를 읽고, ㉠~㉣을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중세 국어 시기에는 주로 소리 나는 대로 표기를 하였다. 그래서 연음이 일어나면 이어 적기(연철)를 하고, 음운 변동이 일어나면 음운 변동의 결과를 표기에 반영하였다. 예컨대, 중세 국어 시기에도 거센소리 되기가 일어났는데, ‘ㅅ님 나코(따님 날고)’의 ‘나코’처럼 거센소리되기가 일어난 대로 표기하였다. 중세 국어 시기의 이러한 표기법의 원리를 이해하면, 중세 국어와 현대 국어의 차이점을 비교하는 데 도움이 된다. 다음의 중세 국어 자료를 탐구해 보자.

- 그를 ㉠닐거(닐--+어) (글을 읽어)
- 불취 기픈 ㉡남근(남+은) (뿌리가 깊은 나무는)
- 어드븐 ㉢길혜(길+에) (어두운 길에)
- 몰애와 ㉣돌과(돌+과) (모래와 돌과)
- ㉤므레너구릭(므레너굴\*+의) 고기논 (수달의 고기는)

\*므레너굴: ‘수달’의 옛말.

- ① ㉠을 보니 현대 국어의 ‘읽-’은 중세 국어에서는 ‘닐-’이었군.
- ② ㉡을 보니 현대 국어의 ‘나무’는 중세 국어에서는 ‘남’이었군.
- ③ ㉢을 보니 현대 국어의 ‘길’은 중세 국어에서도 ‘길’이었군.
- ④ ㉣을 보니 거센소리되기가 일어난 결과를 표기에 반영하였군.
- ⑤ ㉤을 보니 현대 국어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형태의 조사가 쓰였군.

수능특강 93 6

선생님이 제시한 <학습 활동>을 수행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선생님: 중세 국어 단어에 대해서도 ‘형태, 기능, 의미’의 기준을 적용하여 품사를 분류할 수 있어요. ‘형태, 기능, 의미’의 기준을 활용해 다음 중세 국어 자료를 분석하여 중세 국어 단어 ‘새’와 ‘나’의 품사를 분류해 볼까요?

- 새 빅호논 뷔들 어즈리디 말 씨오 (새것 배우는 뜻을 어지럽히지 말 것이고)
- 새와 놀궤니와 (새것과 낡은 것과)
- 엇더 나를 모르시느니잇고 (어찌 나를 모르십니까)
- 내 이를 爲왕하야 (내가 이를 위하여)
- 뷔홀 바를 알에 흐노라 (배울 바를 알게 한다)
- 내 점어실 제 다스리던 배라 (내가 젊었을 때 다스리던 바이라)

- ① 형태 측면에서 ‘새’는 단독으로 쓰이든 조사와 결합하든 ‘새’로만 나타나므로 불변어이다.
- ② 형태 측면에서 ‘나’는 ‘바’가 ‘배’로 나타나듯이 ‘내’로도 나타나므로 가변어이다.
- ③ 기능 측면에서 ‘새’는 ‘빅호다’의 목적어로 쓰이고 있는 체언이다.
- ④ 기능 측면에서 ‘나’는 조사와 결합하여 ‘모르다’의 목적어로 쓰이고 있는 체언이다.
- ⑤ 의미 측면에서 ‘새’는 새것이라는 의미를 가지는 명사이다.

수능특강 224 2

<보기>의 ㉠에 해당하는 부사어가 포함된 것은?

중세 국어에서 부사어는 ‘부사’, ‘체언+부사격 조사’, ‘부사절’ 등의 형식으로 실현되어 현대 국어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다만 중세 국어에서는 ㉠용언의 어간이 바로 부사로 통용되어 부사어로 쓰이는 경우가 많았다. ‘그르 알면(그릇되게 알면)’에서 ‘그르’는 형용사 ‘그르다’의 어간이 바로 부사로 쓰인 예이다.

- ① 맛 업시 너기느니 [맛 없이 여기나니]
- ② 하늬 버리 눈 곧 디니이다 [하늘의 별이 눈과 같이 떨어집니다]
- ③ 蓮(연)스 곳 우희 안자 잇거늘 [연꽃 위에 앉아 있거늘]
- ④ 나랏 말싸미 中國(중국)에 달아 [나라의 말이 중국과 달라]
- ⑤ 聖人神力(성인신력)을 어느 다 솔부리 [성인신력을 어떻게 다 말씀드리겠습니까?]

수능완성 152 39

<보기>의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불휘㉠기픈㉡남곤㉢부르매아니뵈씨㉣꽃㉤도코여름하느 (용비어천가 제2장)

**[현대어 풀이]**  
뿌리가 깊은 나무는 바람에 아니 움직이므로 꽃이 좋고 열매가 많으니

- ① ㉠: ‘현대어 풀이’의 ‘깊은’을 참고할 때, 음성 모음 뒤에서 관형사형 어미 ‘-은’이 쓰였군.
- ② ㉡: ‘현대어 풀이’의 ‘나무는’을 참고할 때, 명사 뒤에서 보조사 ‘은’이 쓰였군.
- ③ ㉢: ‘현대어 풀이’의 ‘바람에’를 참고할 때, 양성 모음 뒤에서 부사격 조사 ‘애’가 쓰였군.
- ④ ㉣: ‘현대어 풀이’의 ‘꽃이’를 참고할 때, 주격 조사 ‘이’가 생략된 형태로 쓰였군.
- ⑤ ㉤: ‘현대어 풀이’의 ‘좋고’를 참고할 때, 형용사 어간 뒤에 연결 어미 ‘-고’가 쓰였군.

수능특강 24 3

어떤 단어가 여러 의미를 지니는 경우 각각의 의미에 따라 반의어나 유의어도 달라질 수 있다. 제시된 예문의 맥락을 고려하여, ㉠과 ㉡에 적절한 반의어와 ㉢과 ㉣에 적절한 유의어를 <보기>에서 고르시오.

|                             |     |
|-----------------------------|-----|
| 예문                          | 반의어 |
| 그는 반지를 돌려 <b>뺐다</b> .       | 끼다  |
| 5에서 3을 ㉠ <b>빼면</b> 2가 된다.   |     |
| 벽에 튀어나와 있는 못을 ㉡ <b>뺐다</b> . |     |

|                                 |     |
|---------------------------------|-----|
| 예문                              | 유의어 |
| 다음 주까지 방을 ㉢ <b>빼고</b> 나가라고 합니다. |     |
| 고치에서 실을 ㉣ <b>빼다</b> .           |     |
| 필요할 때는 통장에서 돈을 <b>빼</b> 써라.     | 찾다  |

(끼다, 낯다, 덜다, 박다, 뺏다, 찾다, 더하다, 비우다, 찌우다)



수능특강 57 6

윗글을 바탕으로 하여, <보기>의 표준 발음법을 이해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제8항** 받침소리로는 ‘ㄱ, ㄴ, ㄷ, ㄹ, ㅁ, ㅂ, ㅇ’의 7개 자음만 발음한다.

**제12항** 받침 ‘ㅎ’의 발음은 다음과 같다.  
 1. ‘ㅎ(ㄹㅎ, ㄷㅎ)’ 뒤에 ‘ㄱ, ㄷ, ㅈ’이 결합되는 경우에는, 뒤 음절 첫소리와 합쳐서 [ㅋ, ㅌ, ㅊ]으로 발음한다.  
 4. ‘ㅎ(ㄹㅎ, ㄷㅎ)’ 뒤에 모음으로 시작된 어미나 접미사가 결합되는 경우에는, ‘ㅎ’을 발음하지 않는다.

**제13항** 홑받침이나 쌍받침이 모음으로 시작된 조사나 어미, 접미사와 결합되는 경우에는, 제 음가대로 뒤 음절 첫소리로 옮겨 발음한다.

**제14항** 겹받침이 모음으로 시작된 조사나 어미, 접미사와 결합되는 경우에는, 뒤엣것만을 뒤 음절 첫소리로 옮겨 발음한다.(이 경우, ‘ㅅ’은 된소리로 발음함.)

- ① 제8항을 보니, 받침소리로 7개의 자음만 발음하는 것은 국어의 종성에 제약이 있기 때문이군.
- ② 제12항의 ‘1’을 보니, ‘ㅎ’과 다른 자음이 축약될 때 형식 형태소라는 정보가 필요하군.
- ③ 제12항의 ‘4’를 보니, 종성에서 다른 자음 뒤에 있는 ‘ㅎ’은 연음 환경에서 탈락하는군.
- ④ 제13항을 보니, ‘제 음가’는 연음되어 초성에서 발음되는 자음의 음가를 의미하겠군.
- ⑤ 제12항과 제14항을 보니, 겹받침 중 뒤엣것이 ‘ㅎ’과 ‘ㅅ’이면 연음으로써 제 음가를 확인할 수 없겠군.

수능특강 58 1

<보기>는 한글 맞춤법 조항의 일부이다. <보기>를 이해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제10항** 한자음 ‘녀, 뇨, 뉴, 니’가 단어 첫머리에 올 적에는, 두음 법칙에 따라 ‘여, 요, 유, 이’로 적는다.  
 [붙임 1] 단어의 첫머리 이외의 경우에는 본음대로 적는다.

**제11항** 한자음 ‘랴, 려, 례, 료, 류, 리’가 단어의 첫머리에 올 적에는, 두음 법칙에 따라 ‘야, 여, 예, 요, 유, 이’로 적는다.  
 [붙임 1] 단어의 첫머리 이외의 경우에는 본음대로 적는다.  
 다만, 모음이나 ‘ㄴ’ 받침 뒤에 이어지는 ‘열, 룰’은 ‘열, 율’로 적는다.

**제12항** 한자음 ‘라, 래, 로, 뽀, 루, 르’가 단어의 첫머리에 올 적에는, 두음 법칙에 따라 ‘나, 내, 노, 뇌, 누, 느’로 적는다.  
 [붙임 1] 단어의 첫머리 이외의 경우에는 본음대로 적는다.

- ① ‘내일(來日)’과 ‘미래(未來)’를 보니 ‘來’의 본음은 ‘래’이겠군.
- ② <보기>에서 ‘단어 첫머리’는 음절의 초성과 같은 개념이겠군.
- ③ 제11항에 따르면, ‘성공율’이 아니라 ‘성공률’이 바른 표기이겠군.
- ④ <보기>는 모두 외래어의 표기와는 관련이 없는 조항이라는 공통점이 있군.
- ⑤ ‘男女’의 한글 표기가 ‘남여’인지 ‘남녀’인지 알아보려면 제10항을 살펴봐야겠군.

수능특강 96 4

<보기>의 밑줄 친 부분의 예로 볼 수 없는 것은?

표준 발음법 제18항은 비음화 현상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받침 ‘ㄱ, ㄷ, ㅂ’은 비음 ‘ㄴ, ㅁ’ 앞에서 [ㅇ, ㄴ, ㅁ]으로 발음한다. 이러한 현상은 앞 음절의 받침이 ‘ㄱ, ㄷ, ㅂ’이 아닌 경우에도 나타난다. 즉 음운 변동의 결과 앞 음절의 종성이 대표음인 ‘ㄱ, ㄷ, ㅂ’ 중 하나이면 비음화 현상이 적용되는 것이다. 이는 홑받침이 ‘ㄱ, ㄷ, ㅂ’ 중 어느 하나로 바뀐 후에 비음화가 적용되거나, 겹받침 중 하나가 탈락한 후에 비음화가 적용됨을 보여 준다.

- ① 놓는    ② 깎는    ③ 밝는    ④ 핥는    ⑤ 없는

수능완성 202 35-36

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하나의 형태소는 언제나 똑같은 소리로 실현되는 경우도 있지만, 앞뒤 환경에 따라 음운 변동이 일어나서 다른 소리로 실현되는 경우도 있다. 가령 ‘땅’이라는 말은 어떤 경우에도 음운 변동이 일어나지 않아 언제나 똑같은 소리로 실현된다. 그러나 ‘밭’은 그렇지 않다.

- (가) 밭을[바틀] …… [바ㄷ]
- (나) 밭이[바치] …… [바ㅈ]
- (다) 밭도[밭또] …… [밭]
- (라) 밭만[반만] …… [반]
- (마) 텃밭을, 텃밭이, 텃밭도, 텃밭만

원래의 소리가 유지되는 (가)와 달리 (나)~(라)에서는 ‘밭’이 그 뒤에 어떤 형태소가 오느냐에 따라 음운 변동이 일어나고 있다. 이에 더해 (마)에서 각각의 ‘밭’은 모두 ‘ㅂ’이 ‘ㅃ’으로 바뀌는 음운 변동이 일어난다. 결국 ‘밭’이라는 형태소는 앞뒤 환경에 따라 총 여덟 가지의 소리로 실현된다.

만약 한글 맞춤법에서 소리를 그대로 적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면, 이 경우 하나의 똑같은 형태소를 여덟 가지의 다른 표기로 적게 되어 매우 복잡한 문자 생활을 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현행 한글 맞춤법에서는 표준어를 소리대로 적되, 어법에 맞도록 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어법에 맞도록 함’은 하나의 형태소가 여러 소리로 실현되더라도 그것을 하나의 표기로 고정한다는 뜻으로서 문자 표기와 해독의 효율을 추구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어법에 맞도록 한다는 원칙에는 예외가 있다. 한글은 기본적으로 소리를 적는 문자이기 때문에 현대 국어의 음운 변동 규칙으로 설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어법에 맞도록 적는 것을 포기하고 소리대로 적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가령 ‘아름답-’과 ‘-어’가 결합할 때 ‘아름답어’가 아니라 ‘아름다워’로 활용되는데, 이는 음운 변동 규칙으로 설명할 수 없으므로 소리 나는 대로 표기된다. 이 밖에도 ( [A] )는 것과 같은 예를 더 들 수 있다.

1. (가)~(마)의 ‘밭’의 발음을 설명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가): 앞 음절 종성이 뒤 음절로 연음이 되었고 어떠한 음운 변동도 일어나지 않았다.
  - ② (나): 구개음화가 적용되어 ‘ㅌ’이 ‘ㅈ’으로 바뀌는 음운 변동이 한 번 일어났다.
  - ③ (다):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적용되어 ‘ㅌ’이 ‘ㄷ’으로 바뀌는 음운 변동이 한 번 일어났다.
  - ④ (라): 음절의 끝소리 규칙, 비음화가 적용되어 두 번의 음운 변동이 일어났다.
  - ⑤ (마): ‘ㅂ’이 앞에 있는 마찰음 ‘ㅅ’의 영향을 받아 된소리되기가 한 번 일어났다.

2. ㄱ~ㅁ 중 [A]에 들어갈 수 있는 사례로 알맞은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 ㄱ. ‘푸르다’처럼 어간 ‘푸르-’에 어미 ‘-었-’이 결합할 때 ‘었’의 바뀐 소리인 ‘렸’을 그대로 적는다
- ㄴ. ‘딱하다’처럼 어근에 ‘하다’가 붙어서 된 용언은 그 ‘하다’를 밝혀 적는다
- ㄷ. ‘집만’처럼 체언에 조사가 결합했을 경우에는 체언과 조사를 구별하여 적는다
- ㄹ. ‘설달’처럼 끝소리가 원래 ‘ㄹ’이었던 말이 다른 말과 어울릴 때 ‘ㄹ’이 ‘ㄷ’ 소리로 나면 ‘ㄷ’으로 적는다
- ㅁ. ‘굳이’처럼 ‘ㄷ’ 뒤에 조사, 어미, 접사의 ‘이’가 와서 구개음화가 일어나도 ‘ㅈ’이 아닌 ‘ㄷ’을 그대로 적는다

- ① ㄱ, ㄴ
- ② ㄱ, ㄹ
- ③ ㄴ, ㄹ
- ④ ㄴ, ㄷ, ㅁ
- ⑤ ㄷ, ㄹ, ㅁ

수능완성 151 37

<보기>는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에 따른 표기 사례이다. 이를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 한글 표기 | 발음    | 로마자 표기    |
|---|-------|-------|-----------|
| ㉠ | 파랑    | [파랑]  | parang    |
| ㉡ | 물건    | [물건]  | mulgeon   |
| ㉢ | 비빔밥   | [비빔빱] | bibimbap  |
| ㉣ | 국사    | [국싸]  | guksa     |
| ㉤ | 칼날    | [칼랄]  | kallal    |
| ㉥ | 뺨는    | [뺨는]  | ppeonneun |
| ㉦ | 치달고   | [치달꼬] | chidatgo  |

- ① ㉠과 ㉡을 보니, ‘ㄹ’은 자음 앞인지 모음 앞인지에 따라 서로 다른 로마자로 적는구나.
- ② ㉢과 ㉥을 비교해 보니, 된소리되기는 로마자 표기에 반영하지 않는구나.
- ③ ㉥과 ㉦을 비교해 보니, 비음화는 로마자 표기에 반영하는구나.
- ④ ㉠, ㉡, ㉤을 보니, 유음화가 일어나면 앞 ‘ㄹ’은 뒤 ‘ㄹ’의 로마자 표기에 맞추어 적는구나.
- ⑤ ㉢, ㉣, ㉦을 보니, 평음이면서 파열음은 초성인지 종성인지에 따라 서로 다른 로마자로 적는구나.

수능특강 115 5

다음은 국어사전의 수정 전후의 사항을 정리한 표이다. ㄱ~ㅁ의 수정 사항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 표제어              | 수정 전  | 수정 후  |
|---|------------------|---|---|
| ㄱ | 꿈-같다             | 「1」 세월의 흐름이 매우 빠르다.<br>「2」 【…이】 덧없고 허무하다.   | 「1」 세월의 흐름이 매우 빠르다.<br>「2」 【…이】 덧없고 허무하다.<br>「3」 매우 좋아서 현실이 아닌 것 같다.  |
| ㄴ | 작전 <sup>01</sup> | 「1」 어떤 일을 이루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나 방법을 강구함.<br>「2」 『군사』 군사적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행하는 전투, 수색, 행군, 보급 따위의 조치나 방법. 또는 그것을 짜는 일         | 「1」 어떤 일을 이루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나 방법을 강구하거나 실행함. 또는 그런 조치나 방법.<br>「2」 『군사』 군사적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행하는 전투, 수색, 행군, 보급 따위의 조치나 방법. 또는 그것을 강구하거나 실행함. |
| ㄷ | 막 <sup>-07</sup> | 「1」 ‘거친’, ‘품질이 낮은’의 뜻을 더하는 접두사.<br>「2」 ‘닥치는 대로 하는’의 뜻을 더하는 접두사.<br>「3」 ((일부 동사 앞에 붙어)) ‘주저 없이’, ‘함부로’의 뜻을 더하는 접두사 | 「1」 ‘거친’, ‘품질이 낮은’의 뜻을 더하는 접두사.<br>「2」 ‘닥치는 대로 하는’의 뜻을 더하는 접두사.   |
| ㄹ | 오싹-하다            | 「동사」 【…이】 몹시 무섭거나 추워서 갑자기 몸이 움츠러들거나 소름이 끼치다.  | [ I ] 「동사」 【…이】 몹시 무섭거나 추워서 갑자기 몸이 움츠러들거나 소름이 끼치다.<br>[ II ] 「형용사」 【…이】 몹시 무섭거나 추워서 갑자기 몸이 움츠러들거나 소름이 끼치는 듯하다.                      |
| ㅁ | 스카프              | 주로 여성이 방한용·장식용 따위로 사용하는 얇은 천. 목에 감거나 머리에 쓰기도 하고, 옷깃 언저리에 약간 내놓거나 허리에 매기도 한다.                                      | 방한용·장식용 따위로 사용하는 얇은 천. 목에 감거나 머리에 쓰기도 하고, 옷깃 언저리에 약간 내놓거나 허리에 매기도 한다.   |

- ① ㄱ: 주변적 의미에 해당하는 뜻풀이를 새롭게 추가하였다.
- ② ㄴ: 중심적 의미에 해당하는 뜻풀이와 주변적 의미에 해당하는 뜻풀이를 모두 수정하였다.
- ③ ㄷ: 주변적 의미에 해당하는 뜻풀이 중 하나를 삭제하였다.
- ④ ㄹ: 중심적 의미에 해당하는 문형 정보를 수정하고 주변적 의미에 해당하는 뜻풀이를 새롭게 추가하였다.
- ⑤ ㅁ: 뜻풀이에서 성별과 관련된 부분을 삭제하였다.

수능특강 83 2

<보기>의 담화 상황을 고려할 때,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선생님: ㉠너희 둘이 여기서 뭐 하니?  
 서경: 선생님, 안녕하세요? ㉡저희 헌혈증 기부 캠페인을 하고 있어요.  
 선생님: 그래? 헌혈증을 기부하려는 곳이 ㉢어디야?  
 승찬: OO 백혈병 소아암 재단ियो. 혹시 졸업생 ‘하모모’ 기억하세요?  
 선생님: 물론이지.  
 서경: ㉣그분이 그 재단을 운영하시는데, 최근 헌혈증 기부자가 많이 줄어 걱정이라고 하세요.  
 선생님: 그래서 너희들이 이렇게 앞장서서 캠페인을 벌이고 있는 거구나. ㉤우리 학교 친구들이 많이 참여해 주면 좋겠네.

- ① ㉠: 화자가 ‘서경’과 ‘승찬’을 가리키기 위해 사용한 이인칭 대명사이다.
- ② ㉡: 화자가 자신과 ‘승찬’을 상대에게 낮추어 이르기 위해 사용한 일인칭 대명사이다.
- ③ ㉢: 화자가 자신이 모르는 어느 곳을 가리키기 위해 사용한 지시 대명사이다.
- ④ ㉣: 화자가 ‘승찬’이 언급한 ‘하모모’를 높여 이르기 위해 사용한 삼인칭 대명사이다.
- ⑤ ㉤: 화자가 ‘캠페인’이 벌어지고 있는 곳을 가리키기 위해 사용한 지시 대명사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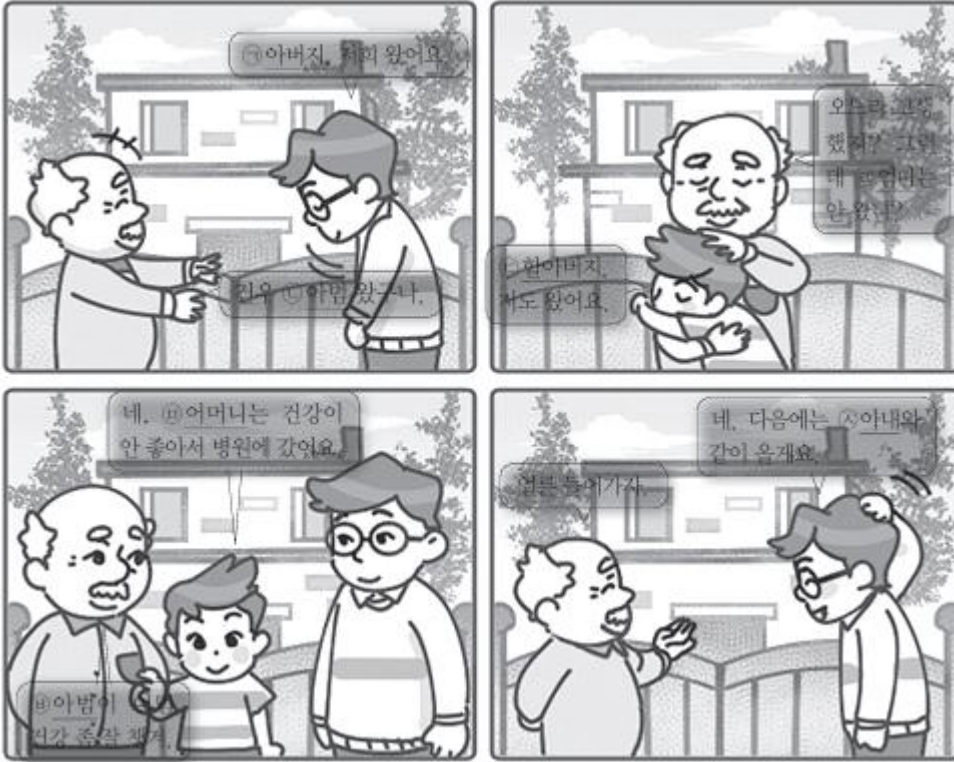
수능특강 86 5

<보기>의 ㉠, ㉡이 드러난 예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우리말의 담화 관습에는 겸양 표현, 완곡 표현 등이 있다. 겸양 표현은 ㉠겸손함을 나타내거나 남에게 양보할 때 자신을 낮추어 표현하는 것이고, 완곡 표현은 ㉡상대방의 감정을 상하지 않게 생각을 예들려 우회적으로 표현하는 것이다.

- | ① | 담화 관습 | 담화 관습이 드러난 예   |
|---|-------|--|
| ① | ㉠     | 아버지: 필기시험에 통과하다니 우리 아들 대단해!<br>아들: (칭찬에 감사하게 여기며) <u>운이 좋아서 문제가 잘 풀렸어요.</u>              |
| ② | ㉠     | 손님: 집들이에 초대해 주어서 고마워요.<br>집주인: (진수성찬을 내놓으며) <u>차린 게 없어 송구합니다.</u>                        |
| ③ | ㉠     | 선생님: 세 번이나 연속으로 선행상을 받다니, 너 정말 대단하구나.<br>학생: (의기양양해하며) <u>다음에는 선행상을 다른 친구에게 양보하겠습니다.</u> |
| ④ | ㉡     | 점원: 식사 맛있게 하셨나요?<br>고객: (맛이 없었다고 느끼며) <u>오후 늦게 간식을 많이 먹어서인지 입맛이 없네요.</u>                 |
| ⑤ | ㉡     | 학생 1: 영화 보러 같이 갈래?<br>학생 2: (마음이 내키지 않는다고 생각하며) <u>오늘 몸이 별로 안 좋네.</u>                    |

수능특강 85 4



- ① ㉠, ㉡은 동일한 대상을 가리키지만 화자와 청자 간의 물리적 거리로 인해 서로 다른 표현이 사용되었다.
- ② ㉠, ㉢은 동일한 대상을 가리키지만 화자와 대상의 관계 차이로 인해 서로 다른 표현이 사용되었다.
- ③ ㉡, ㉣은 동일한 표현이 사용되었지만 서로 다른 대상을 가리킨다.
- ④ ㉢, ㉣은 화자와 청자의 관계 차이로 인해 서로 다른 표현이 사용되었지만 동일한 대상을 가리킨다.
- ⑤ ㉢, ㉣은 동일한 대상을 가리키지만 화자와 대상 간의 물리적 거리로 인해 서로 다른 표현이 사용되었다.

수능특강 87 6

<보기>의 '선생님'의 질문에 대한 답으로 적절한 것은?

선생님: 담화 안에는 앞에서 언급된 말을 대신하는 표현이 사용되기도 하고, 뒤에서 언급될 말을 대신하는 표현이 사용되기도 합니다. ㉠~㉣은 모두 다른 말을 대신하는 표현인데요, 이들을 두 부류로 나누어 볼까요?

소영: ㉠그 소문 진짜야? 학교 축제 이야기 말이야.

승우: 학교 축제 이야기? ㉡그게 원데 그래?

소영: 학교 축제 때 특별 이벤트가 있다던데? 혹시 알고 있어?

승우: 흠, ㉢이건 나도 전해 들었는데, 학교 축제 때 연예인이 온대.

소영: 와, ㉣그거 정말이지?

| 앞에서 언급된 말을 대신하는 경우 | 뒤에서 언급될 말을 대신하는 경우 |
|--------------------|--------------------|
| ① ㉠, ㉡             | ㉢, ㉣               |
| ② ㉠, ㉢             | ㉡, ㉣               |
| ③ ㉠, ㉢             | ㉡, ㉣               |
| ④ ㉡, ㉢             | ㉠, ㉣               |
| ⑤ ㉡, ㉣             | ㉠, ㉢               |

수능완성 110 1 이걸 그... 원지를 모르겠음... 수완 110페이지엔 1번 문제가 없어요;; 일단 담화니 그닥 중요하진 않을 것 같아요



수능특강 108 1-2

1~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일반적으로 음절은 독립해서 발음할 수 있는 최소 단위로 규정되며, 음절을 이루는 구성 요소는 크게 초성, 중성, 종성의 셋으로 나눌 수 있다. 음절을 이루는 데에는 몇 가지 제약이 있는데, 이러한 음절 구조 제약은 한 음절 내에서만 일어난다. 현대 국어의 초성과 종성에 나타나는 음절 구조 제약 중 몇 가지를 살펴 보자.

먼저 초성에 오는 자음의 개수와 종류에 대한 제약이다. 현대 국어에서 초성에 올 수 있는 자음의 최대 개수는 한 개이다. 현대 국어에서 두 개의 자음으로 시작하는 형태소가 없는 것은 이러한 음절 구조의 제약 때문이다. 또한 연구개 비음 ‘ㅇ’이 초성에 올 수 없다. 현대 국어에서 연구개 비음 ‘ㅇ’은 음절의 종성에서만 발음될 수 있기 때문이다.

현대 국어의 종성에 올 수 있는 자음의 개수와 종류에도 제약이 있다. 현대 국어에서 종성에 올 수 있는 자음의 최대 개수는 한 개이다. ‘닭’, ‘삶’과 같이 겹받침으로 끝나는 형태소라고 하더라도 두 자음이 음절 종성에서 모두 발음되는 경우는 없다. ㉠이런 형태소 뒤에 모음으로 시작되는 형식 형태소가 오면 두 자음이 모두 발음될 수 있지만 그중 하나는 다음 음절의 초성으로 연음되어 발음된다. 그 이외의 경우에는 겹받침 중의 하나가 반드시 탈락한다.

또한 종성에는 ‘ㄱ, ㄴ, ㄷ, ㄹ, ㅁ, ㅂ, ㅇ’의 일곱 종류만이 올 수 있다. 이 제약을 어기는 형태, 즉 ‘닭다’, ‘부엌’, ‘솔’ 등에서와 같이 ㉡음절 종성에서 발음되지 못하는 자음이 종성에 놓이게 되면 그 자음은 ‘ㅂ, ㄷ, ㄱ’ 중 한 자음으로 바뀌게 되거나 탈락하게 된다.

1. 다음의 자료에서 ㉠과 ㉡을 설명할 수 있는 예로 적절한 것끼리 짝지은 것은?

㉠: 앵+도 → [암 : 도]    ㉡: 닭+이 → [다치]  
 ㉢: 밭+--+아 → [밭바]    ㉣: 찢+--+어 → [찌어]  
 ㉤: 묶+--+지 → [묵찌]

- |   |      |      |
|---|------|------|
|   | ㉠의 예 | ㉡의 예 |
| ① | a    | b    |
| ② | a    | c    |
| ③ | a    | d    |
| ④ | c    | d    |
| ⑤ | c    | e    |

2. 뒷글과 <보기>를 종합하여 이해할 때, 중세 국어가 현대 국어와 다른 점을 설명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중세 국어에서 음절의 초성에는 두 개까지 자음이 올 수 있었고 연구개 비음 ‘ㅇ’이 초성에 오는 경우도 있었다. 또한 종성에도 두 개의 자음이 올 수 있었다. 중세 국어에서는 단어를 소리 나는 대로 적는 표음 주의 표기법을 채택했으므로 초성과 종성에 있는 자음군의 자음들은 모두 발음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다음의 중세 국어 음절 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쌀( > 쌀), 뜯( > 뜯), 뵈다( > 타다)
- 이아( > 잉아), 보오리( > 봉오리), 스스울( > 스숭+울), 스스이( > 스숭+이)
- 웁디(음초러들지), 뵈도다(말도다), 벳디(벳지), 빛과(빛과)

- ① ‘쌀’, ‘뜯’, ‘뵈다’로 보아 초성에 자음군이 올 수 있었다.
- ② ‘벳디’, ‘빛과’로 보아 종성에서 ‘ㅅ’이 발음되었다.
- ③ ‘웁디’, ‘뵈도다’로 보아 종성에 두 개의 자음이 올 수 있었다.
- ④ ‘이 아’, ‘보오리’, ‘스스울’로 보아 종성에서 연구개 비음 ‘ㅇ’이 발음되지 않았다.
- ⑤ ‘스스울’, ‘스스이’로 보아 연철에 의해 연구개 비음 ‘ㅇ’이 초성에 올 수 있었다

수능완성 150 35-36

1~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중의성은 어떤 언어 표현이 둘 이상의 의미로 해석되는 특성을 말한다. 문장에서 중의성이 생기는 원인으로 대표적인 세 가지 경우를 살펴보자.

첫째, 문장에서 동음이의어나 다의어가 사용될 때 중의성이 생길 수 있다. 예컨대 “우리 이제 이 길을 함께 걸을까요?”와 같은 문장에서 ‘길’은 물리적인 길을 의미할 수도 있지만 추상적으로 삶의 목적이나 방향과 같은 뜻을 지닐 수도 있기 때문에 중의적이다.

둘째, 문장의 구조가 둘 이상의 구조로 분석될 수 있을 때 중의성이 생길 수 있다. 예컨대 “씩씩한 동주와 민지가 어제 우리 집에 놀러 왔다.”는 ‘씩씩한’이 ‘동주’를 꾸며 줄 수도 있고 ‘동주와 민지’를 꾸며 줄 수도 있기 때문에 중의적이다. 즉 ‘씩씩한 동주’와 ‘민지’가 접속되는 구조일 때와 ‘씩씩한’이 ‘동주와 민지’를 수식하는 구조일 때에 그 의미가 서로 다르다는 것이다.

셋째, ㉠어떤 대상의 수나 양을 나타내는 말이 있을 때 그 말이 어떤 범위에 걸쳐 있는지에 따라 중의성이 생길 수 있다. 예컨대 “그 반 학생은 컴퓨터 한 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라는 문장에서 ‘컴퓨터 한 대’를 사용하는 사람이 ‘학생 개개인’이라면 학생들이 자신의 컴퓨터를 한 대씩 사용하고 있다는 뜻이 되고, ‘학생 전체’라면 반 학생들이 단 하나의 컴퓨터를 사용하고 있다는 뜻이 된다.

위의 대표적인 세 가지 경우 외에도 중의성이 생기는 경우는 많다. 물론 어떤 문장이 중의성이 있다고 해도 문장이 이어지는 글에서는 대개 앞뒤의 문맥이 주어지므로, 중의성이 자연스럽게 해소되어 대부분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간혹 한 문장의 중의성이 글을 원활하게 읽는 데에 방해가 될 때도 있으므로, 가급적 중의성이 없는 문장을 쓰는 것이 좋다.

중의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중의성의 원인을 제거하는 방법이 가장 좋겠지만, 그 원인을 제거하기가 어려운 경우도 있다. 적절한 문맥을 제공하거나 어순을 바꾸거나 적절한 수식어 혹은 문장 부호를 사용하거나 상세히 풀어 써 주는 등의 방법으로 중의성을 해소할 수 있다.

1. ㉠에 해당하는 예문으로 적절한 것은?

- ① 선희는 울면서 떠나가는 민호를 배웅했다.
- ② 준현이는 현지와 민호에게 큰 도움을 주었다.
- ③ 미술관에서 학생들은 전시 작품을 모두 감상했다.
- ④ 그 선생님은 아내보다 영화를 훨씬 더 좋아하신다.
- ⑤ 사람들이 다채로운 곳을 다니다 보면 견문이 넓어진다.

2. [A]를 바탕으로 ㉡~㉤에 나타난 중의성의 원인과 중의성 해소 방법을 설명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그 자리에 가 보니 배가 많이 있었다.  
 ㉢ 두 명의 포수가 참새 네 마리를 잡았다.  
 ㉣ 언니의 사진을 보니 옛 추억이 떠오른다.  
 ㉤ 대학에 합격한 영수와 철수가 함께 찾아왔다.  
 ㉥ 선주는 화를 내며 변명하는 그에게 소리를 질렀다.

- ① ㉡: ‘배’의 동음이의어가 있으므로 ‘배’ 앞에 ‘큼직한’과 같은 수식어를 추가하여 ‘배’의 의미를 한정한다.
- ② ㉢: ‘두 명의 포수’가 ‘참새 네 마리’ 중 어떤 범위에 걸쳐 있는지에 따라 두 가지 이상으로 해석되므로 ‘두 명의 포수가’ 뒤에 ‘각각’을 넣어 준다.
- ③ ㉣: ‘언니의’의 뜻이 두 가지 이상으로 해석되므로 ‘언니의’를 ‘언니를 찍은’과 같이 상세히 풀어 써 준다.
- ④ ㉤: 문장 구조가 두 가지로 분석되므로 ‘철수가’를 문장 맨 앞으로 이동하여 문장 구조를 한 가지로 한정한다.
- ⑤ ㉥: 문장 구조가 두 가지로 분석되므로 ‘화를 내며’ 뒤에 쉼표를 사용하여 문장 구조를 한 가지로 한정한다.

수능특강 111 1~2

1~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모음 조화는 같은 성질을 지니는 모음들끼리 어울려 나타나는 현상이다. 국어의 모음 조화에서 동일한 부류로 기능하는 모음들을 묶을 때 흔히 양성 모음과 음성 모음으로 구분하는데, ‘ㅏ’, ‘ㅑ’ 등을 양성 모음이라 하고, ‘ㅓ’, ‘ㅕ’, ‘ㅗ’, ‘ㅛ’ 등을 음성 모음이라 한다. 모음 조화는 크게 형태소 내부에서 작용하는 것과 형태소의 결합에서 작용하는 것으로 구분할 수 있다.

우선 형태소 내부에서 작용하는 모음 조화는 한 형태소의 모음들이 같은 성질을 지니게 한다. ‘알록:얼록’이나 ‘파랗-:퍼랗-’은 ㉠형태소 내부에서 모음 조화가 작용한 예로, 양성 모음과 음성 모음의 대립이 나타나는 말의 쌍에 해당한다. 다음으로 형태소 결합에서 작용하는 모음 조화는 주로 어간 뒤에 결합하는 형식 형태소의 모음이 어간의 모음과 동일한 부류에 속하게 한다. ‘막아 : 먹어’, ‘잡아 : 접어’ 등이 그 예이다. 용언 어간 뒤에 ‘아’나 ‘어’로 시작하는 어미가 결합할 때 모음 조화에 의해 ‘아’ 또는 ‘어’가 선택되고 있다. 이때 양성 모음 뒤에서는 같은 계열의 ‘아’가 선택되고 음성 모음 뒤에서는 같은 계열의 ‘어’가 선택되기 때문에 모음 조화로 인정할 수 있다. 다만 ‘막아서, 잡아서’에서처럼 어미 전체의 모음이 아니라 첫째 음절의 모음만 모음 조화를 따르는 경우는 불완전한 형태의 모음 조화라고 할 수 있다.

한편 15세기 국어에도 현대 국어와 마찬가지로 형태소 내부에서 작용하는 모음 조화와 형태소의 결합에서 작용하는 모음 조화가 있었다. ‘부름’은 형태소 내부에서 작용하는 모음 조화, ‘도기(독+이)’는 형태소의 결합에서 작용하는 모음 조화의 예이다. 15세기 국어의 단모음들은 <표>와 같이 혀의 상태에 따라 세 부류로 구분할 수 있다. ‘·, ㅏ, ㅑ’는 설축에 속하는 모음으로 혀가 움츠러드는 특징을 지녔고, 이에 대립되는 ‘ㅓ, ㅕ, ㅗ’는 설소축에 속하는 모음으로 혀가 조금만 움츠러드는 특징을 지녔다. 그리고 ‘ㅣ’는 설불축에 속하는 모음으로 혀가 움츠러들지 않는 특징을 지녔다. 설축, 설소축, 설불축의 세 부류는 15세기 국어의 모음 조화와 직접적인 관련을 맺는다. 즉, 설축 계열의 모음은 설축 계열끼리, 설소축 계열의 모음은 설소축 계열끼리 어울렸다. 그리고 설불축은 그 어느 쪽에도 속하지 않는 중립 모음으로서, 설축 계열이나 설소축 계열과 어울릴 수 있었다. 그러나 ‘·’가 없어지는 등의 단모음 체계에 변화가 일어나면서 모음 조화가 지켜지지 않는 일도 일어나기 시작했다.

| 설불축 | 설소축 | 설축 |
|-----|-----|----|
| ㅣ   | ㅓ   | ·  |
|     | ㅕ   | ㅏ  |
|     | ㅗ   | ㅑ  |

<표> 혀의 상태에 따른 단모음 분류

1. 뒷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우물(움+을)’은 설소축에 속하는 모음끼리, ‘말씀’은 설축에 속하는 모음끼리 어울리는 현상이 일어난 것이다.
- ② 15세기 국어의 ‘오늘’과 달리, 현대 국어의 ‘오늘’은 형태소 내부에서 모음 조화가 지켜지지 않은 예에 해당한다.
- ③ ‘꿀깍’은 한 형태소 내부에서 양성 모음끼리, ‘꿀깍’은 한 형태소 내부에서 음성 모음끼리 어울린 것으로 모음 조화가 지켜진 예이다.
- ④ ‘사 숨’은 형태소 내부에서 작용하는 모음 조화가 지켜진 예이고, ‘가논(가-+-논)’은 형태소의 결합에서 작용하는 모음 조화가 지켜진 예이다.
- ⑤ ‘곧아서(곧-+-아서)’와 ‘먹어서(먹-+-어서)’는 모두 어미의 첫째 음절의 모음만 모음 조화를 따랐다는 점에서 불완전한 형태의 모음 조화가 작용한 것이다.

2. <보기>에서 ㉠에 해당하는 예로 적절한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 뽕독 : 뽕독  
 ㉡. 강총 : 강총  
 ㉢. 도탑- : 두텁  
 ㉣. 뽕알- : 뽕열

- ① ㉠, ㉡      ② ㉠, ㉣      ③ ㉡, ㉢      ④ ㉠, ㉢, ㉣      ⑤ ㉡, ㉢, ㉣

수능특강 236 1-2

1~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옷+과’를 발음할 때는 먼저 ‘올과’로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적용된 다음에 된소리되기가 일어나 [올과]로 발음된다. 그리고 ‘놀 +-고’를 발음할 때는 거센소리되기가 일어나 [노코]로 발음된다. 그런데 만약 ‘놀 +-고’에 거센소리되기 대신 음절의 끝소리 규칙을 먼저 적용한다면 ‘놀 +-고 → 놀고 → [\*놀꼬]’라는 부정확한 발음이 나오게 된다. 이처럼 여러 음운 변동이 적용될 수 있는 단어의 실제 발음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음운 변동의 적용 순서를 합리적으로 설정해야 하며, 일관된 순서로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다. 음운 변동의 적용 순서를 설정할 때는 ㉠적용 순서를 따로 정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결정되는 경우와 적용 순서를 인위적으로 정해 주어야 하는 경우가 있다. 위에서 예를 들었던 ‘옷+과 → 올과 → [올과]’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된소리되기보다 먼저 적용된다는 순서를 가지고 있다. 된소리되기는 음절 끝 ‘ㄱ, ㄷ, ㅂ’ 뒤에서 적용되는 현상이므로 ‘옷+과’의 경우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먼저 적용되지 않으면 된소리되기는 적용될 수 없다. 평파열음이 비음 앞에서 비음으로 바뀌는 현상인 비음화는 음절 끝 ‘ㄱ, ㄷ, ㅂ’에만 적용되므로, ‘옷+만 → 올만 → [올만]’과 같은 사례에서도 자동으로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적용된 후에 비음화가 적용된다. 한편 ‘만지+-어 → 만져 → [만져]’를 살펴보면, ‘ㅣ’로 끝나는 용언 어간 뒤에 ‘아/어’로 시작하는 어미가 올 때 ‘ㅣ’가 반모음 ‘j’로 바뀌는 현상인 반모음화와 경구개음 ‘ㅈ, ㅊ, ㅊ’ 뒤에 반모음 ‘j’가 올 때 반모음 ‘j’가 탈락하는 현상인 ‘j’ 탈락이 차례로 적용되고 있다. 국어에서는 ‘ㅈ, ㅊ, ㅊ’로 끝나는 형태소 뒤에 ‘ㄷ, ㄱ’ 등 ‘j’로 시작하는 형태소가 직접 결합하는 경우는 없으므로, ‘j’ 탈락은 반드시 반모음화가 일어난 후에만 적용된다.

반면 음운 변동의 적용 순서를 따로 정해 주지 않으면 표면형, 즉 우리가 실제로 듣게 되는 발음형이 잘못 나올 수 있어 이를 막기 위해 음운 변동의 적용 순서를 인위적으로 정해 주어야 하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알+-는’처럼 ‘ㄹ’과 ‘ㄴ’이 결합하는 경우 유음 탈락이 적용될 수도 있고 유음화가 적용될 수도 있다. 하지만 유음화가 먼저 적용되면 [\*알른]과 같이 잘못된 표면형이 나오므로 유음 탈락이 먼저 적용된다는 순서를 인위적으로 부여해야 한다. 즉 ‘알+-는 → [아 : 는]’은 유음 탈락이 먼저 적용되며 유음화는 적용되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읽+-고’는 자음군 단순화가 먼저 적용될 수도 있고 된소리되기가 먼저 적용될 수도 있다. 그런데 만약 자음군 단순화가 먼저 적용되면 [\*일고]와 같은 잘못된 표면형이 나오게 된다. 용언 활용형에서는 ‘ㄹ’ 뒤에서 된소리되기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잘못된 표면형이 나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읽+-고 → 읽꼬 → [일꼬]’와 같이 된소리되기가 자음군 단순화보다 먼저 적용된다는 순서를 인위적으로 정해 주어야 한다.

(\*는 문법적으로 잘못된 것.)

1. 윗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살+-는 → [사 : 는]’는 유음 탈락을 먼저 적용하며 유음화가 일어나지 않은 것이다.
- ② ‘넓+-고 → [널꼬]’는 자음군 단순화를 먼저 적용한 다음에 된소리되기가 일어난 것이다.
- ③ ‘짓+-는 → [진 : 는]’은 음절의 끝소리 규칙을 먼저 적용한 다음에 비음화가 일어난 것이다.
- ④ ‘닭+-고 → [닥꼬]’은 음절의 끝소리 규칙을 먼저 적용한 다음에 된소리되기가 일어난 것이다.
- ⑤ ‘똥+-고 → [똥꼬]’는 거센소리되기를 먼저 적용하며 자음군 단순화가 일어나지 않은 것이다.

2. ㉠에 해당하는 예만을 에서 고른 것은?

Ⓐ 감+-는 → [감는]                      Ⓑ 맑+-게 → [말깨]                      Ⓒ 빠지+-어 → [빠 : 저]  
 Ⓓ 짹+-다 → [짹따]                      Ⓔ 찾+-고 → [찰꼬]

- ① a, b, c
- ② a, c, e
- ③ a, d, e
- ④ b, c, d
- ⑤ b, d, e

수능특강 100 1-2

1~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형태소는 발음할 때 음운 변동의 영향을 받아 여러 가지 다른 형태로 나타나는 경우가 있다. 형태소가 여러 가지 다른 형태로 나타나는 경우, 음운 현상이나 연음을 활용하여 어떤 형태가 나타날지 예측할 수 있는 경우가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명사 ‘국’에 조사 ‘도’가 붙을 때 된소리되기가 일어나는 현상은 명사 ‘집’에 조사 ‘도’가 결합할 때도 일어난다. 이는 ‘ㄱ, ㄷ, ㅂ’ 뒤에 오는 예사소리가 된소리로 변하는 음운 변동이 국어에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국어의 일반적인 음운 변동을 활용하여 예측할 수 있는 형태가 나타나는 경우, 형태 변화가 ‘규칙적’이라고 한다.

한편 ‘입다’와 ‘덥다’의 활용형을 비교해 보면, ‘입다’의 활용형은 모두 예측 가능한 형태로 나타나는 반면에, ‘덥다’의 활용형은 그렇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먼저, 두 용언 어간에 자음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올 경우에는 두 용언의 활용형은 모두 예측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어간에 어미 ‘-다’가 결합한 기본형의 경우, ‘ㄱ, ㄷ, ㅂ’ 뒤에 예사소리가 오는 환경이 만들어지므로, [입따], [덥 : 따]와 같이 된소리되기가 적용된 형태가 나타난다. 그런데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올 경우에는 두 단어가 서로 다른 형태 변화를 보인다. 예를 들어, 어간 ‘입-’과 ‘덥-’에 각각 어미 ‘-어’를 결합하면, 일반적으로 연음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다. ‘입어[이버]’는 이러한 예측과 부합하지만, ‘더워[더워]’는 연음이 일어날 것이라는 예측을 벗어난다. ‘더워[더워]’와 같이 예측할 수 없는 형태가 나타나는 경우, 형태 변화가 ‘불규칙적’이라고 한다.

현대 국어에서 불규칙적인 형태 변화를 보이는 용언 가운데 중세 국어 시기에는 규칙적인 형태 변화를 보이는 예도 있다. 이는 국어에서 역사적으로 일어난 음운 변화와 관련이 있다. 다음의 중세 국어 자료를 살펴보자.

(가) 돌 **잡고져** 호되 (달을 잡고자 하되)  
 (나) 소놀 **자바셔** (손을 잡아서)  
 (다) 모미 겨스렌 **덥고** (몸이 겨울엔 덥고)  
 (라) **더븐** 버티 우희 뵈니 (더운 별이 위에 쬐니)

(가), (나)의 ‘잡고져’, ‘자바셔’에서 알 수 있듯이, 현대 국어 ‘잡다’는 중세 국어 시기에도 어간 말 자음이 ‘ㅂ’이었다. 하지만 현대 국어의 ‘덥다’는 중세 국어 시기에 어간 말에 ‘빙’을 가지고 있었다. 중세 국어에는 종성에 8개의 소리만 올 수 있다는 제약이 있어서, 종성에서 ‘ㅍ, ㅂ’은 ‘ㅂ’으로, ‘ㅌ, ㅎ’은 ‘ㄷ’으로, ‘ㅈ, ㅊ, ㅌ’은 ‘ㅅ’으로 바뀌는 음운 현상이 일어났다. 그래서 (다), (라)의 ‘덥고’, ‘더븐’에서 알 수 있듯이, 어간 ‘덥-’에 자음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결합하면 ‘빙’이 ‘ㅂ’으로 표기에 나타났고,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결합하면 연음되어 ‘빙’이 그대로 표기에 나타났다. 그런데 15세기 중엽 이후에 ‘빙’이 소실되면서, ‘덥-’은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결합할 때 ‘더오-’ 또는 ‘더우-’의 표기로 등장하기 시작하여 불규칙적인 형태 변화를 보인다. 이외에 ‘짓다, 잇다’ 같은 ‘ㅅ’ 불규칙 용언들도 중세 국어 시기에는 종성에 ‘ㅌ’을 가진 단어로 규칙적인 형태 변화를 보여 주지만, ‘ㅌ’이 소실되면서 현대 국어에서는 불규칙적인 형태 변화를 보인다.

1. 윗글을 이해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음운 변동이 하나의 형태소가 여러 가지 다른 형태로 나타나는 원인이 되는군.
- ② ‘국도’, ‘집도’를 발음할 때 나타나는 형태는 자음의 배열만 파악해도 예측할 수 있군.
- ③ ‘덥고’를 발음할 때 일어나는 된소리되기는 예측할 수 없는 형태를 만들어 내는군.
- ④ 현대 국어에서 용언의 기본형만 비교해서는 용언의 불규칙한 활용을 예측할 수 없군.
- ⑤ 음운의 역사적인 변화도 형태소가 여러 가지 다른 형태로 나타나는 데 영향을 미치는군.

2. 윗글을 읽고 <보기>를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 ① (가)의 중세 국어에서 ‘춧’, ‘춧ㅌ’이 나타나는 까닭은 연음이나 규칙적인 음운 변동으로써 설명하기 어렵다.
- ② (가)의 현대 국어에서 [찬], [차ㅌ]이 나타나는 까닭은 연음이나 규칙적인 음운 변동으로써 설명하기 어렵다.
- ③ (나)의 중세 국어에서 ‘침’, ‘치빙’이 나타나는 까닭은 연음이나 규칙적인 음운 변동으로써 설명하기 어렵다.
- ④ (다)의 중세 국어에서 ‘짓’, ‘지ㅌ’이 나타나는 까닭은 연음이나 규칙적인 음운 변동으로써 설명할 수 있다.
- ⑤ (다)의 현대 국어에서 [질 : ], [지]가 나타나는 까닭은 연음이나 규칙적인 음운 변동으로써 설명할 수 있다.

수능완성 202 35-36

1~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하나의 형태소는 언제나 똑같은 소리로 실현되는 경우도 있지만, 앞뒤 환경에 따라 음운 변동이 일어나서 다른 소리로 실현되는 경우도 있다. 가령 ‘땅’이라는 말은 어떤 경우에도 음운 변동이 일어나지 않아 언제나 똑같은 소리로 실현된다. 그러나 ‘밭’은 그렇지 않다.

- (가) 밭을[바틀].....[바ㄷ]
- (나) 밭이[바치].....[바ㅈ]
- (다) 밭도[밭또].....[밭]
- (라) 밭만[반만].....[반]
- (마) 텃밭을, 텃밭이, 텃밭도, 텃밭만

원래의 소리가 유지되는 (가)와 달리 (나)~(라)에서는 ‘밭’이 그 뒤에 어떤 형태소가 오느냐에 따라 음운 변동이 일어나고 있다. 이에 더해 (마)에서 각각의 ‘밭’은 모두 ‘ㅂ’이 ‘ㅃ’으로 바뀌는 음운 변동이 일어난다. 결국 ‘밭’이라는 형태소는 앞뒤 환경에 따라 총 여덟 가지의 소리로 실현된다.

만약 한글 맞춤법에서 소리를 그대로 적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면, 이 경우 하나의 똑같은 형태소를 여덟 가지의 다른 표기로 적게 되어 매우 복잡한 문자 생활을 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현행 한글 맞춤법에서는 표준어를 소리대로 적되, 어법에 맞도록 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어법에 맞도록 함’은 하나의 형태소가 여러 소리로 실현되더라도 그것을 하나의 표기로 고정한다는 뜻으로서 문자 표기와 해독의 효율을 추구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어법에 맞도록 한다는 원칙에는 예외가 있다. 한글은 기본적으로 소리를 적는 문자이기 때문에 현대 국어의 음운 변동 규칙으로 설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어법에 맞도록 적는 것을 포기하고 소리대로 적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가령 ‘아름답-’과 ‘-어’가 결합할 때 ‘아름답어’가 아니라 ‘아름다워’로 활용되는데, 이는 음운 변동 규칙으로 설명할 수 없으므로 소리 나는 대로 표기된다. 이 밖에도 ( [A] 과 같은 예를 더 들 수 있다. )는 것

1. (가)~(마)의 ‘밭’의 발음을 설명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가): 앞 음절 종성이 뒤 음절로 연음이 되었고 어떠한 음운 변동도 일어나지 않았다.
- ② (나): 구개음화가 적용되어 ‘ㄷ’이 ‘ㅈ’으로 바뀌는 음운 변동이 한 번 일어났다.
- ③ (다):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적용되어 ‘ㄷ’이 ‘ㄸ’으로 바뀌는 음운 변동이 한 번 일어났다.
- ④ (라): 음절의 끝소리 규칙, 비음화가 적용되어 두 번의 음운 변동이 일어났다.
- ⑤ (마): ‘ㅂ’이 앞에 있는 마찰음 ‘ㅅ’의 영향을 받아 된소리되기가 한 번 일어났다.

2. ㄱ~ㅁ 중 [A]에 들어갈 수 있는 사례로 알맞은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ㄱ. ‘푸르다’처럼 어간 ‘푸르-’에 어미 ‘-었-’이 결합할 때 ‘었’의 바뀐 소리인 ‘뤼’를 그대로 적는다

ㄴ. ‘딱하다’처럼 어근에 ‘하다’가 붙어서 된 용언은 그 ‘하다’를 밝혀 적는다

ㄷ. ‘집만’처럼 체언에 조사가 결합했을 경우에는 체언과 조사를 구별하여 적는다

ㄹ. ‘섣달’처럼 끝소리가 원래 ‘ㄹ’이었던 말이 다른 말과 어울릴 때 ‘ㄹ’이 ‘ㄷ’ 소리로 나면 ‘ㄷ’으로 적는다

ㅁ. ‘굳이’처럼 ‘ㄷ’ 뒤에 조사, 어미, 접사의 ‘이’가 와서 구개음화가 일어나도 ‘ㅈ’이 아닌 ‘ㄷ’을 그대로 적는다

- ① ㄱ, ㄴ
- ② ㄱ, ㄹ
- ③ ㄴ, ㄹ
- ④ ㄴ, ㄷ, ㅁ
- ⑤ ㄷ, ㄹ, ㅁ

수능완성 258 37-38

1~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합성 동사는 ‘본받다’, ‘앞서다’, ‘돌아오다’ 등과 같이, 둘 이상의 어근이 결합된 동사이다. 이들 합성 동사는 대응되는 구 구성을 상정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본받다’는 ‘본을 받다.’와 같은 구성과 대응되고, ‘앞서다’ 역시 ‘앞에 서다.’와 대응된다. ‘돌아오다’는 ‘모퉁이를 돌아 집에 왔다.’와 같은 문장을 고려하면, ‘돌아 오다’와 대응되는 합성 동사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합성 동사와 구 구성의 관련성으로 인해, ‘-아/-어’로 용언 어간이 연결된 구성이 합성 동사인 지 구 구성인지 구분이 쉽지 않을 수 있다. 특히 보조 용언이 쓰인 구 구성의 경우, 보조 용언을 앞말과 띄어 쓰는 것이 원칙이지만, 붙여 쓸 수도 있어 더욱 구분이 어렵다. 이때는 ㉔ ‘-아/-어’ 뒤에 ‘서’가 붙을 수 있으면 구 구성, 그렇지 못하면 합성 동사 또는 보조 용언 구성으로 판별한다. 그리고 보조 용언은 합성 동사를 구성하는 어근보다 그 의미가 더 추상적이라는 점을 통해 합성 동사와 보조 용언 구성을 구분할 수 있다.

그런데 모든 합성 동사가 이처럼 대응되는 구 구성을 갖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남의 말을 듣고 그 뜻을 알다.’의 의미를 갖는 ‘알아듣다’는 ‘알다’와 ‘듣다’의 순서의 결합으로는 그 의미를 적절히 도출할 수 없다. 들은 이후에 알게 된다는 의미를 고려할 때, ‘알아듣다’에서는 ‘알다’와 ‘듣다’의 결합이 거꾸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이다. 또한 ‘깨물다’의 경우, ‘사탕을 깨물다.’는 ‘사탕을 깨어서 물다.’라는 대응되는 구 구성을 상정할 수 있으나 ‘허를 깨물다.’는 ‘깨다’와 ‘물다’의 두 동작을 상정할 수 없으므로 대응되는 구 구성이 없다고 할 수 있다.

한편 합성 동사를 구성하는 어근의 결합 방식이 일반적인 문장 구성 방식과 같은지 여부에 따라 합성어를 통사적 합성어와 비통사적 합성어로 구분하기도 한다. 비통사적 합성어는 일반적인 문장 구성 방식이 아니므로 애초에 대응되는 구 구성을 상정할 수 없다. 이에 비해 통사적 합성어는 대응되는 구 구성이 있는 경우도 있으나, ㉕ 통사적 합성어이지만 대응되는 구 구성이 없는 경우도 있다.

1. ㉔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㉑ ‘사과를 깎아 먹었다.’에서 ‘깎아 먹다’는 구 구성이다.
- ㉒ ‘학생이 연필을 가져갔다.’에서 ‘가져가다’는 합성 동사이다.
- ㉓ ‘문을 열어 놓아라.’에서 ‘열어 놓다’는 보조 용언 구성이다.
- ㉔ ‘편지를 부쳐 주었다.’에서 ‘부쳐 주다’는 보조 용언 구성이다.
- ㉕ ‘아이는 돌멩이를 집어 던졌다.’에서 ‘집어 던지다’는 보조 용언 구성이다.

2. ㉕에 해당하는 예를 <보기>의 ㉑~㉔에서 모두 고른 것은?

㉑: (밭줄을) 잡아당기다.  
 ㉒: (땅을) 팔아먹다.  
 ㉓: (시냇물을) 건너뛰다.  
 ㉔: (재산을) 긁어모았다.

- ① ㉑, ㉒
- ② ㉑, ㉓
- ③ ㉑, ㉔
- ④ ㉒, ㉓
- ⑤ ㉒, ㉔